

27일 Market Index			
↑ 코스피	6615.03	↑ 코스닥	1226.18
	(+139.40)		(+22.34)
↓ 금리 (연이자율)	3.492	↓ 환율 (원/달러)	1471.55
	(-0.004)		(-12.95)

매일유업  
‘영양식’ 중심  
전략 다각화  
04



## SSD시장 상승 사이클... 삼성·SK ‘AI 특수’

삼성전자, SSD값 10% 이상 인상 타 공급업체 가격 재조정 가능성 삼성 시장 점유율 33%, SK 30% 고부가 시장 주도권 확보 ‘호재’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전라 인업에서 가격 강세가 본격화되면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키우고 있다. 이에 글로벌 SSD 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며 수요 대응에 나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SSD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0~330달러에 판매되는 삼성 990PRO 1TB(테라바이트) 제품은 최대 360달러까지 상승해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사한 사양의 제품을 100달러 미만에 구매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3~4배 급등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SSD 업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번 가격 조정이 타 공급업체들의 가격 재조정 가능성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증권가에서는 낸드 부문 영업이익률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익성을 추월할 수 있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이같은 가격 인상은 AI인프라 구축 확대에 따른 기업용 SSD 수요 급증과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 심화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전반적인 2분기 낸드 플래시 계약 가격이 전 분기 대비 70~75%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SSD 시장에서 점유율 33.8%, SK하이닉스는 30.2%를 기록하며 고부가 시장 주도권을 확보 중이다.

삼성전자는 수요 확대에 발맞춰 6세대 PCIe가 적용된 기업용 SSD인 ‘PM1763’ 양산을 준비 중이다. PCIe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표준 연결 기술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와 대역폭이 크게 향상된다. AI 서버처럼 대량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서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PM1763은 5세대 대비 성능이 2배, 전력효율은 60% 개선됐다. 최대 64TB 용량 제품도 출시될 계획이다. 이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 주요 저장장치로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2면에 계속〉 /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코스피 6600’ 시총 사상 첫 6000조 시대

코스피 이달들어 30.93% 급상승 외국인, 국내주식 3.7조 가량 매수 삼전 1.7조·하이닉스 1.8조 사들여

고공행진하는 코스피가 6600선도 넘어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5% 상승한 6615.03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장 중 및 종가 기준 66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도 사상 첫 6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5421조5541억원,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은 각각 679조5452억원, 4조 원이다.

〈관련기사 3면〉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가장 강한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반등 속도도 가장 가팔랐다. 지

난달 19.1% 하락했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30.93% 올랐다.

미국과 이란이 일시 휴전하며 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와 이를 투자 기회로 노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월간으로 역대 최대 폭인 35조8806억원어치 국내 주식을 팔아 치웠지만, 이달 들어 3조7000억원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 7025억원, 1조 7814억원씩 사들이며 반도체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28%, 5.73% 상승해 22만4500원, 129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SK하

이닉스는 이날도 장중 131만7000원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증권가는 한국 증시의 장밋빛 미래를 얘기한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의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표한 투자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호조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올해 이익이 전년 대비 22% 급증할 것”이라며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 역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외국인 수급은 대규모 매도 후 회복되기 시작했다”며 현재 코스피 반도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은 낮은 편으로 향후 자금 유입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



## 李 ‘알파고 아버지’와 AI 협력방안 논의

하사비스 딥마인드 대표 만나 구글, 연내 서울 AI 캠퍼스 개소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하사비스 대표는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혁신과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과 AI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AI 캠퍼스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집무실에서 하사비스 대표를 접견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로, 2016년 이세돌 9단과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을 총괄한 인물이다. 또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 개발 공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세

계적 석학이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글로벌 AI 협력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국을 찾아와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우리 나라는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제조역량, 안정적인 인프라, 우수한 인재를 두루 갖춘 나라”라고 말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 社告

##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② 영상 촬영 및 편집(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영상제작 및 편집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메트로빌딩)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2026년 5월 13(수)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추후 통지
-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 작성 또는 영상제작물을 제작해 제출
- 1차 실무면접
  -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62.2%...3주만에 하락 /사진 뉴스1  
▲李,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충격에 “민주주의의 근간 위협...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운동 시작...“어렵게 시작된 변화, 압도적으로 완수”  
▲김 총리 독립영화 ‘3학년2학기’ 관람...“20대 삶, 깊이 바라봤는지 돌아보게 돼”

▲국민의힘 개혁파 ‘대안과미래’ 내일 회동...지선 앞 현안 논의  
▲나경원 “남의 집 전월세 사는데 죄인가”...장특공 축소 비판

# 공정위, 오픈마켓 '갑질 약관' 시정 개인정보 유출 등 사업자 책임 강화

부당한 면책조항 대거 손질  
'대금지급 보류' 사유 구체화  
"디지털 거래환경 신뢰 제고"

국내 주요 오픈마켓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겨온 약관들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쿠팡,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11번가, 네이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을 바로잡은 것이다. 기존 약관에서는 제3자의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

그램 유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왔다. 공정위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도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는 중개 관리자로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변경된다. 또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을 때 이용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던 조항 역시 귀책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누도록 시정되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신용카드 부당사용 확인' 등으로 이유로 최대 60일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던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유를 구체

화했다.

회원 탈퇴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팡 이머니' 등이 자동 소멸되던 쿠팡의 약관은 무상 포인트에 한해서만 소멸되도록 고치고, 결제 실패 시 사업자가 등록된 다른 결제수단으로 임의 결제하던 방식은 이용자가 직접 지정한 순서에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약관보다 운영정책을 우선시하던 조항,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차별하던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구윤철 부총리, 바이오·뷰티 산업 현장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청주시 오송 바이오밸리 이니스트에스티에서 열린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에 참석, 현장을 시찰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

## 5월 분양물량 2만 세대 육박

전년 동월대비 76% 증가 규모  
수도권 1만4330세대... 74% 차지

다달일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이 2만 세대에 달할 전망이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오는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1만9278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만968세대) 대비 76% 급증한 규모다. 일반분양 역시 8344세대에서 1만5495세대로 86%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4330세대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이 6930세대로 가장 많으며, 인천과 서울이 각각 3954세대, 3446세대 등이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흑석동 씨밋더힐(1515세대),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1931세대) 등 정비사업 중심의 대단지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경기에서는 남양주시 왕숙2지구A1(812세대), 성남시 분당구 성남낙생

지구A1(1400세대), 화성시 동탄2신도시 C27블록(473세대) 등 공공택지 및 신도시 중심 공급이 이어진다. 평택 고덕에서는 힐스테이트고덕엘리스트(A31·A34·A35블록), 우미린프레스티지 등 다수 사업장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 더샵검단레이크파크(AB22·AB23블록, 총 2800여 세대), 남동구 힐스테이트구월아파트파크(496세대)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경남, 부산, 충남 등을 중심으로 일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직방관계자는 "수도권은 거래 회복과 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분양시장이 비교적 양호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다"며 "향후 분양시장은 전체적인 공급 규모보다는 개별 사업장의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안성미 기자 smahn1@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일 잘하는 증권사가 만든 N2, IMA 1

만기보유 시 원금은 지키고, 수익은 기대되는 IMA도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 운용 능력을 지닌  
NH투자증권이 잘하는 일  
그냥 IMA가 아니라 IMA 1을 만나세요

**트든한 1위**  
신용등급 1위 AA+  
\*26.3.18 한국기업평가 국내 증권사 기준

**능력있는 1위**  
주식별행 및 인수금융 1위  
\*25년 다벨리 & 테라블로컴 주권 인수금융 실적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1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4년 연속 1위  
\*25년 KVIC, 증권사 부문

**이용고객 1천만 명**  
\*26.3.20 국민은행연초 기준  
이용고객 1,043만 명(중개자 및 고객 데이터)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IMA)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예금지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IMA)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본 상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종합금융투자사)에서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당사(AA+, 2026.03.18, 한국기업평가)의 신용위험(부도, 고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A 운용자산을 당사의 고유재산 등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A/BBB+/A/B- 순으로 구분됩니다.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운용 및 관리 등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발생하며, 기타 운용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1370호(2026-03-27 ~ 2027-03-26)

**NH투자증권**

## SSD 공급계약 지속... "가격 협상력 높아질 것"

>> 1면 'SSD 시장 상승...'서 계속

SK하이닉스 또한 SSD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321단 쿼드 레벨셀(QLC) 기술을 적용한 소비자용 SSD 'PQC21'의 공급을 개시했다. QLC는 하나의 셀에 4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해 3비트를 저장할 수 있어 TLC보다 고용량 구현에 유리한 기술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기업용 SSD에서도 고성능 TLC와 고용량 QLC를 아우르는 라인업으로 AI 수요 전반에 대응한

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량 QLC 기업용 SSD에 강점을 가진 자회사 솔리다 임파와 시너지를 바탕으로 AI데이터센터와 AI PC스토리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SSD 시장이 단순 메모리 수요를 넘어 인프라 핵심 시장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며 "공급 제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社告**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metro

# 개미들 '스마트 투자' 확산... ETF·롱숏펀드로 변동성 대응

지수 고점에도 공포지수 50 넘어 개미들 ETF 갈아타며 장세 대응 롱숏펀드로도 한 달 새 325억 유입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증시 회귀 증권가 "실적 개선에 추가상승 여력"



ChatGPT로 생성한 국내 증시 변동성. 방향성 없이 등락을 반복하는 시장 흐름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하며 '시총 6000조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상승장에 올라타는 단순 추종이 아니라, 높은 변동성 속에서 매매 타이밍을 나누고 자산을 분산하는 이른바 '스마트 투자'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코스피 지수가 8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하루에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자 저점과 고점 구간에서 매수·매도를 반복하거나 돈이 되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모양새다.

### ◆생존형 스마트 개미 '자산 다양화'

27일 기준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54.96으로 '공포 구간'으로 분류되는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변동성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4월 국내 상장주식 회전율은 37.63%를 기록했다. 방향성에 대한 확신 없이 단기 매매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변동성 장세라는 평가다.

ETF를 통한 스마트 투자도 활발하다. 저점이라고 예상될 땐 지수 상승세

를 쫓는 레버리지 ETF를 사고, 박스권 상단까지 오르면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에 투자하는 식이다.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부터 이날까지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회전율이 2880.72%에 달하며 1위에 올랐다. 'KODEX코스닥150선물인버스' (2770.04%)와 'KODEX인버스' (2134.96%)도 회전율이 2000 단위를 넘어섰다. 'KODEX레버리지'와 'KODEX반도체레버리지'도 이 기간 회전율이 1505.53%, 1194.89%에 달했다.

롱숏 펀드 투자자도 늘고 있다. 롱숏 펀드는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사고(롱·long) 내릴 것 같은 종목을 공매도(숏·short)해 수익을 남기는 펀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4일 기준 국내 롱숏 펀드 38개에 지난 한 달간 325억원, 석 달간 743억원이 들어왔다.

한국 증시로 돌아오는 개미들도 있다. 한국은행의 '3월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화 예금 잔액은 1021억7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53억7000만달러 줄었다. 사상 최대 폭 감소다.

### ◆"장밋빛 시장 전망"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점차 지정화 리스크보다 실적과 물가(금리)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가 상승이 물가에 반영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을 키울 요인으로 지목된다. 3월 미국 노동통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년 만에 최고치 3.3%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전쟁 이전 2.5%에서 3.2%로, OECD는 2.8%에서 4.2%로 대폭 올렸다. 한국의 3월 생산자물가는 1.6% 상승해 4년여 만에 가장 크게 치솟았다. 이 같은 생산자물가의 오름세는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적은 시장 편이다. JP모건은 "코스피는 다시 6000을 넘어서며 전쟁 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며 "올해 이익 추정치가 37% 급등했고 이는 전쟁발 상태 그플레이션 상황을 충분히 상쇄할 것"이라며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8500포인트까지 높여잡았다. IT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세에 근거해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는 7000포인트로, 강세장 시나리오는 8500포인트로 각각 높였다. 이란전 직전인 지난 2월 전망치보다 각각 1000씩 높아진 수치다.

골드만삭스는 20일 보고서에서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8000포인트로 잡았다. 티모시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전략가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 역시 48% 수준의 견조한 이익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코스피 반등에도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7.5배로, 과거 평균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과거 코스피가 고점에 도달했을 때 평균 PER이 10배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 美 슈퍼위크에 한은 시험대 성장 호조에도 금리 안갯속

美 FOMC·GDP·PCE 줄줄이 공개 환율·채권금리 변동성 확대 우려 GDP 1.7% 성장에 인하 명분 약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직후 국내 성장률 서프라이즈를 받아낸 데 이어 미국발 '슈퍼위크'라는 첫 대의 시험대에 오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미국 1분기 성장률, 3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한꺼번에 공개되면서 원·달러 환율과 국내 채권금리, 한은의 금리 경로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현지시간 오는 28~29일 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회의 결과는 현지시간 29일 오후 2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오후 2시30분 공개된다.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준의 정책 메시지를 확인하게 된다.

같은 날 밤에는 미국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가늠할 핵심 지표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현지시간 30일 오전 8시30분 1분기 국내총생산(GDP)속보치와 3월 개인소득·개인지출 지표를 발표한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E 가격지수까지 함께 확인되는 만큼 이번 주는 미국의 통화정책, 성장, 물가 방향을 한꺼번에 점검하는 분

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미국 지표는 한은 입장에서 단순한 해외 이벤트가 아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는 재료가 나왔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전기 대비 7.5% 증가했다. 성장 흐름만 놓고 보면 한은이 경기 부양을 이유로 서둘러 기준금리를 낮출 명분은 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강한 성장률이 곧바로 통화정책의 안도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보다 7.8포인트(p) 하락해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2%로 전월보다 높아졌고,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역시 2.2% 상승했다. 성장만 보면 금리 인하는 어렵지만, 심리와 물가를 함께 보면 정책 판단은 더 복잡해진다.

여기에 미국발 변수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시 환율과 대외금리 차로 향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과 달러 흐름에 따라 1470~148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환율과 시장금리가 동시에 오르면 한은의 금리 인하 여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DB손해보험과 안전을,건강을,사랑을

# 함께, 약속

나에게 맞는 간편건강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

펫들이 반려견·반려묘 보험



QR코드를 스캔해 상품을 확인하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71954호(2026.02.26~2027.02.25)

# ‘흰 우유’ 의존 탈피... 매일유업, ‘영양식’ 중심 다각화 전략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8435억 성인 영양식 ‘셀렉스’ 등 비중 40% 18종 식물성 제품군... 대체유 선점 내달 매일헬스뉴트리션 흡수합병

국내 유가공 산업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멸균우유 수입 확대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매일유업이 ‘유업’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체질 개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흰 우유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식물성 음료, 헬스뉴트리션, 외식 사업 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종합 영양 설계 기업’로서의 도약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매일유업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843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매출 구성의 변화다. 성인 영양식 ‘셀렉스’와 식물성 음료 등이 포함된 기타 부문의 매출 비중이 40.45%까

지 확대됐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24% 포인트 급증한 수치로 사업 구조의 중심축이 유제품에서 비유제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유업 부문의 성장은 식물성 음료가 견인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어메이징 오트, 아몬드브리즈 등 총 18종의 식물성 제품군을 운영하며 대체유 시장을 선점했다. 이들 제품군은 약 10%의 영입이익률을 기록하며 단순한 보조 사업을 넘어 확실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매일유업은 다음달 100% 자회사인 매일헬스뉴트리션을 흡수합병한다. 이번 결정은 헬스케어 사업을 본사 체제로 편입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포석이다. 분산돼있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하고 마케팅 및 IR 기능의 중복을 제거해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합병을 기점으로 야기분류부터 성인 영양식, 메디컬 푸드까지

아우르는 ‘전 생애 주기 뉴트리션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개척한 ‘셀렉스’는 지난해 누적 매출 5000억원을 돌파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 여기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조절식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환자식 브랜드 ‘메디웰’이 전국 1000여 개 병원 및 전문기관에 공급망을 넓히며 고령친화 식품 시장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매일유업의 매일헬스뉴트리션 합병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해외 시장과 외식 사업 역시 매일유업의 체질 개선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해외 수출액은 2022년 515억원에서 2025년 924억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했다. 중국 스타벅스 6000여 매장에 식물성 음료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채널 다변화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외식 사업의 경우 지주사 매일홀딩스 산하 엠씨씨드를 통해 풀바셋, 크리스탈 제이드, 더키친 일브르노 등 프리미엄 외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풀바셋은 베이커리 ‘밀도’와의 협업 매장을 확대하며 유가공 사업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강력한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일유업의 행보를 두고 위기 상황에서 미래 가치 투자를 선택한 결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흰 우유 시장의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매일유업

의 다각화 전략은 유업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식물성 단백질과 헬스 케어를 결합한 고부가 가치 사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 가치 재평가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매일유업 ‘셀렉스 프로핏 SPORTS 와일드 초코’ /매일유업

유채만발 구리의 봄

2026 GURI

# 유채꽃 축제

5. 8. (금) ~ 5. 10. (일)  
구리한강시민공원

<p><b>5.8.(금) 전야제</b></p> <p>타악이그니스 · 이수나 최누리 · 테너 이이샤아 빅마마 이지영 은가은 · 신승태</p>	<p><b>5.9.(토) 개막식</b></p> <p>건원취타대 · 박상철 자두 · 바리톤 장동일 에스플라바 양지은 · 진해성</p>	<p><b>5.10.(일) 폐막식</b></p> <p>백대빈/조안나 · 소프라노 박진경 슈퍼주니어 성인 · 박혜원 안성훈 · 전유진 <b>불꽃쇼</b></p>
---	---	--

주최 구리시 주관 구리문화원 후원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출연진은 변동될 수 있음

## 신흥국 고속철 수요 커진다 패키지 경쟁 속 韓 보폭 확대

세계 고속철도 시장, 연평균 6% ↑ 수주 핵심 변수 ‘자금 조달 능력’ 현대로템 수출실적으로 진입 속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투자 계획이 이어지면서 고속철 선진국인 중국, 일본, 유럽 등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고속철 사업은 차량 공급뿐 아니라 파이낸싱과 건설, 시스템 구축, 운영까지 결합되는 패키지 구조인 만큼 종합 사업 역량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국도 현대로템을 앞세워 해외 고속철 레퍼런스를 쌓으며 시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27일 미 시장조사기관 크리덴스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고속철도 시장은 지난 2024년 418억5900만달러에서 2032년 667억1688만달러로 연평균 6% 성장할 전망이다.

친환경 교통 수요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수요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주요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속철 사업은 통상 자금 조달과 기술 이전,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까지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신흥국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국가가 많아 사업 초기부터 금융 지원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자금 조달 능력이 수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은 패키지형 고속철 수주 경험에서는 주요 경쟁국 대비 초기 단계에 있지만, 최근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신흥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 23일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2호선 전동차 공급 계약을 통해 처음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타코 그룹과 약 491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해

무인 전동차를 공급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타코그룹과 도시철도·고속철도 차량 현지화 협약도 체결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주를 약 1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현지 남북 고속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 공략의 교두보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4년 우즈베키스탄에도 250km급 고속차량 6편성·42량을 공급하며 국산 고속차량의 첫 해외 적용 사례를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레퍼런스 축적이 향후 고속철 본사업 참여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과 일본, 유럽은 패키지형 사업 구조에 맞춰 시장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자금과 건설, 차량 공급을 결합한 방식으로 동남아 철도시장에 진출해왔으며, 지난 2023년 개통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이 대표 사례다. 일본은 신칸센 기술과 공적개발원조(ODA)를 결합해 인도 고속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량과 기술뿐 아니라 운영 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까지 포함한 협력 모델이다.

독일 지멘스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빈그룹 계열 철도 개발사 빈스피드와 고속철도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지멘스는 벨라로노보 고속열차와 신호·전철화·통신 등 철도 시스템을 턴키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고속철 사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 회수 구조를 수반하는 만큼 리스크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 예측이 빗나갈 경우 운영 단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실제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역시 개통 이후 수요와 수익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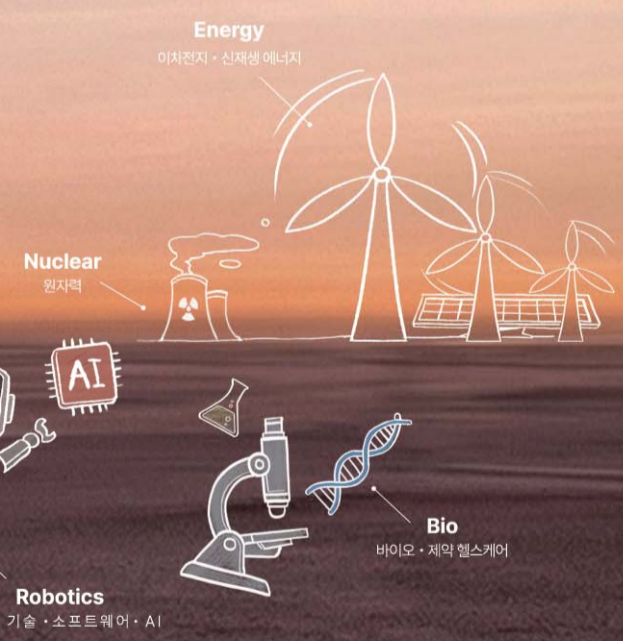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 BNK금융그룹이 두근두근한 생산적 금융의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꿈꾸는 아이부터 내일을 짓는 기술자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BNK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의 꿈이 현실이 되는 여정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2026 - 2030년 5년간 총 55조 규모 생산적 금융지원



### BNK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주요 추진사업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금융 지원



국민성장펀드 참여 확대



동남권 지역특화산업 육성



그룹 중심 스타트업 통합 지원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케이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씬뉴군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 차량 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돌려준다… 내달부터 신청

당정, 고유가·에너지 불안 대응  
특약 가입시 연 2% 보험료 할인  
가입 범위 1톤 이하 화물차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보험업계가 할인 특약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에 따른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려는 방안으로, 특약 가입자에게 연 2%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과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개회의의 모듬발언에서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과 국제 유가가 회복되는 등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했고, 민간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5부제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4차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당정은 고유가 시대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개인용 차량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 신청을 개시하고 4월 이후부터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과

별도로 영세 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할인 특약 대상을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도 특위 회의 후 손보업계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연 2%의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도 지원한다. 서민우대 할인 특약의 가입 범위를 1톤 이하 화물차까지 넓히는 방안이다.

이 회장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한시적인 상품인지에 대해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상황이 안정되면 기존의 마일리지 특약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출 현황 및 대응 방안, 석유업계 수입 지원 문제 등도 점검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간사를 맡고있는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유는 5월 필요한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국내 소비 절감 등의 노력을 포함하면 5월 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은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프타 가격은 100%까지 올랐다가 72% 수준으로 낮아졌고, 연말까지 나프타 210만톤을 확보했다”며 “당장 급한 5월분은 예년 대비 85~90%가 확보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수 재고는 3개월분을 확보했다”며 “일부 기업에 요소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지난 23일부터 재고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방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정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가 손실분을 확정하고 회계법인에서 검증한 후 산업부가 손실분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아스팔트 등 건설자재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민간 수급협체제를 통해 시급한 건설 현장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박성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 하정우 사의 표명 임박… 국회 입성 초읽기

부산 북갑 재보궐 출마 예정  
민주당, 이르면 내일 영입식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다.

27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하정우 수석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데미스 하사서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 접견 일정을 수행한 후, 28일 사의를 표명하고 부산 북갑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수석이 사퇴하면 곧바로 인재영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9일 영입식을 열고, 곧바로 전략공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는 사실상 연휴나마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찬가지이므로 빠르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하 수석은 전날(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출마를 논의했다.

정 대표는 적극적으로 출마를 요청했고, 하 수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서 열린 현장최고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26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을 마치고 서울에서 하정우 수석과 저녁식사를 했다”면서 “하 수석에게 AI 3대 강국 설계자이니,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하 수석을 만나보니 보자마자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컴퓨터 공학도로서 세상만사에도 참 관심이 많은 착한 천재였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많았다. 그래서 더욱 탐이 났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우원식 “국힘, 개헌안 투표 막지 말라”

(국회의장)

“개헌 무산되면 책임져야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 개헌안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되면 그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는 5월 7일 제10차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열릴 것으로 다가왔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어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방선거

와 함께하는 건 안 된다면, 언제 하지는 것인가”라며 “공직선거와 동시에 해야 투표율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뻔히 알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선거에 맞춰 하면 ‘개헌 블랙홀’이 된다는 주장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개헌 내용에 찬반 논란이 없는데 블랙홀이 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런데도) 왜 이렇게 끝까지 당론으로 막고 있을까 의문”이라며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 어게인’ 아닐까 반문한다”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 李-하사비스, AI 국제규범 필요 ‘공감대’

>> 1면 ‘李 ‘알파고 아버지’서 계속

또한 “이런 협력들은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표이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면담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I에 관심도 많고 국가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는데 제대로 인류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는 인류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갈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하사비스 대표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다”며 “AI가 과학의 증진과 또 의료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전 세계 인류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알파고를 통해 저희는 기술에 대한 검증할 수가 있었다. 바둑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더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게 알파고였다고 생각한다”며 “이 배움을 과학과 의료 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질병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알파폴드의 개발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통제 규범이나 표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사비스 대표도 이에 공감

하며 “민간부문 경쟁과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규범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며 “한국·영국·싱가포르가 협력해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정부와 민간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제미니AI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저도 제미니AI를 자주 사용하는데 가끔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한다. 일종의 버그(착오)인가”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하사비스 대표는 “과운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이 저희가 내놓는 지침이 정확하지 않으면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그래서 AI를 사용하고 또 개발할 때 가드레일이라고 불리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예진 기자

## 오세훈, 선거운동 돌입… 보신각서 첫 유세

“이 정부 독주 좌시하지 않겠다”

6·3 지방선거의 서울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캠프 사무실이 위치한 보신각까지 시민들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예비후보로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했던 박수민 의원이 함께했다.

오 시장은 도보 이동을 마친 후 보신각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더 이상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어렵게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완수해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도약의 위에서 다시 한번 ‘점핑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 건강한 서울, 더 따뜻한 서울,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호소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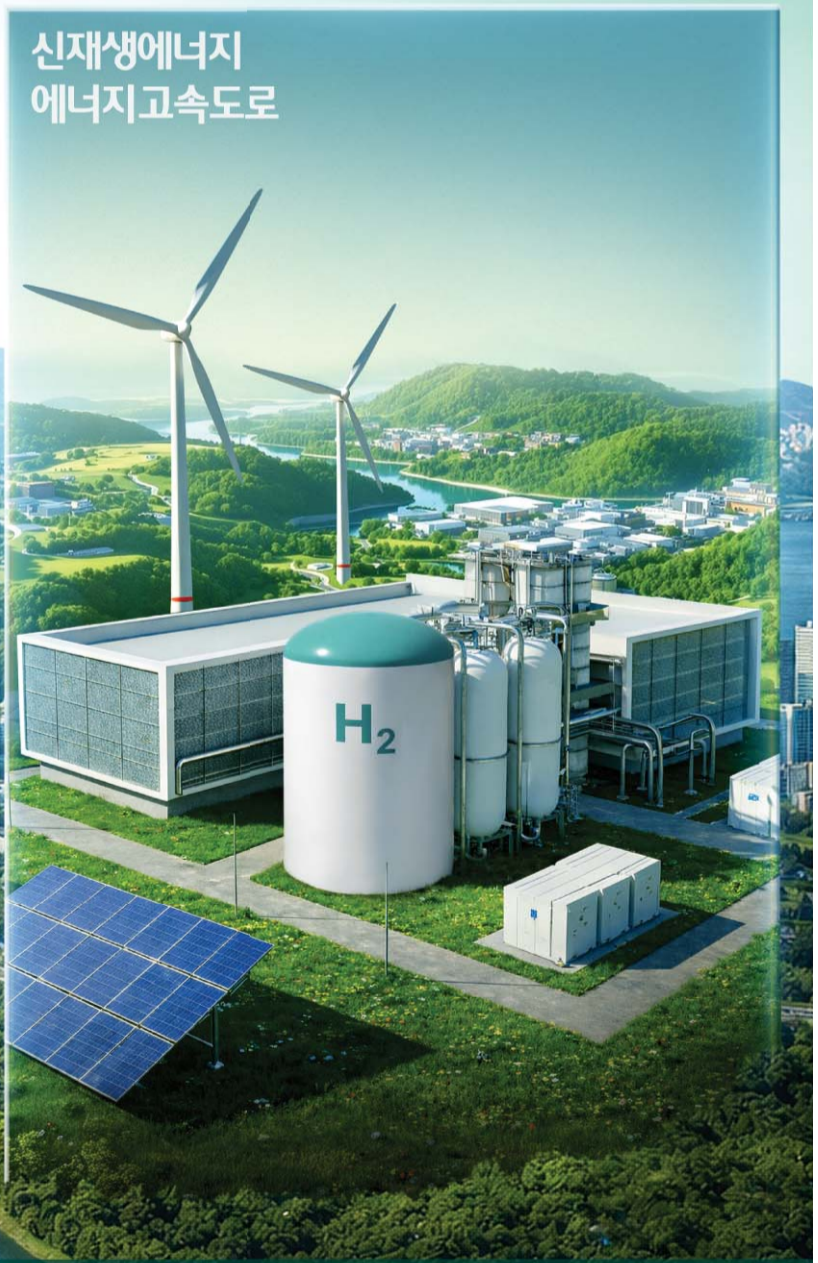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중동 평화협상 불발에도 ‘환율 하락’... 위험자산 선호 심리

美-이란, 확전 가능성 크지 않아  
원·달러 환율 전일 대비 12원 급락  
코스피도 장중 6600선 최초 돌파  
전문가들 “당분간 환율 하락 압력”

미국과 이란의 2차 평화협상이 최종 무산되며 ‘중동사태’의 쟁점이 복잡해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원화값 상승)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쟁이 장기화 이어지며 이란과 미국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확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에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작용한 영향이다.

27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2.5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직전 거래일 종가인 1484.5원과 비교해 12원 급락(원화값 급등)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불발되면서 ‘중동사태’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도 원화값이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도 장중 6600선을 최초로 돌파하며



‘중동사태’ 확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와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상승 마감했다.

휴전협상 불발에도 위험자산 선호가 여전한 것은 확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장의 낙관 때문이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사태’의 종전을 위한 이란과의 2차 대면협상이 최종 불발됐으며, 미국 협상단이 중재국인 파키스

탄에서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협상 기한을 25일까지 늘렸지만,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다.

다음날인 26일 트럼프는 “모든 카드가 우리가 갖고 있고 그들(이란)에게는 아무 카드도 없다”라고 압박하면서도, “그들이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전화만

하면 된다”라고 발표했다. 2차 협상의 불발에도 협상 장구를 열어두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시장에서는 ‘중동사태’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2차 협상에 응하지 않았던 이란 측에서도 돌연 입장을 바꿨다. 당초 지난 25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을 떠났던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다음날인 26일 다시 파키스탄을 찾았다. 이란 혁명수비대를 대변하는 반(半) 관영매체 타스님 통신은 이날 방문의 목적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의 종전 요구안을 명확히 전달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외무장관의 파키스탄 복귀에도 미국 협상팀을 다시 파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양측이 ‘물밑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동사태가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양측의 경제적 부담이 막대해지고 있어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동사

태’에 따른 이란의 피해 규모는 약 3000억~1조 달러로 추산된다. 올해 초와 비교해 생필품 가격이 약 70% 상승하는 등 ‘초인플레이션’도 발생했다. 미국에서도 급등한 유가와 생필품 가격, 그리고 낮은 전쟁 지지도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며, 원화값의 상승 동력인 증시 상승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협상 실패로 인한 위험 선호 심리 위축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달러 환율은 수출기업의 월말 환전 수요와 국내 증시 상승에 힘입어 하락압력이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1분기 카드사 실적, 상위권 약세... ‘비용 절감’ 중위권 선방

우리, 당기순익 439억 전년비 33% ↑  
KB 27%, 현대·하나도 5%대 증가  
삼성·신한, 순익 전년비 15% 줄어

1분기 카드사 실적이 엇갈렸다. KB 국민·현대·우리·하나카드 등 중위권 카드사는 순익이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등 상위권은 감소세를 보였다.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적 차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각 카드사 공시에 따르면 우리카드 1분기 당기순익은 4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했고, KB국민카드 1075억원으로 27.2% 늘었다. 현대카드도 647억원, 하나카드 575억원으로 각각 5.4%, 5.3% 증가했다.

중위권 카드사들이 1분기 수익 방어에 성공한 반면, 업계 1·2위는 순익이 하락했다. 삼성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15.3% 줄어든 1563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1154억원으로 전년보다 14.9% 감소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독자 가맹점 확대에 따른 비용 구조 개선 효과가 순이익 반등을 이끌었다. 특히 우리카드는 올해 1분기 독자 가맹점 수를 195만개까지 확대하며 결제 인프라를 강화했다. 전년 동기(175만4000개)와 비교하면 1년 만에 20만개가량 늘었다.

독자 카드 매출 비중도 전년 동기 16.2%에서 37.8%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비씨카드 결제망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독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중심의 비용 구조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KB국민카드는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을 축소하면서 비용 효율화에 성공했다. 1분기 KB국민카드의 신용손실충당금은 21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2847억원) 23.1% 감소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지난해 자산 건전성이 제고된 데 따른 영향이다.

하나카드도 충당금을 축소하면서 비용을 줄였다. 1분기 하나카드 충당금 등 전입액은 869억원으로 12% 감소했다. 여기에 기업·체크·신판 등 결제성 취급액의 성장과 해외 카드 매입을 포함한 글로벌 부분 시장 지배력 확대가 더해지면서 순이익 증가를 견인했다.

현대카드는 1분기 영업비용이 1조 9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으나, 이자 비용을 5.8% 감축하며 비용 부담을 일부 상쇄했다. 여기에 투자금융 자산을 전년 동기 대비 18배 이상 확대하면서 수익성을 끌어 올렸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1분기 비용 부담이 확대됐다. 삼성카드는 금융비용과 대손비용이 1584억원, 1818억원

으로 각각 16.8%, 4.5%씩 증가했다. 판매관리비 역시 5414억원으로 12.9% 증가했다.

신한카드는 수수료 및 기타 영업비용이 8192억원으로 1년 새 43.4% 증가했다. 판매관리비는 2216억원으로 14.5% 올랐다.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도 반영됐다.

한편,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본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수익성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본업 경쟁 우위를 지키고,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도 “페이먼트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본효율적 전략 사업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 수익 창출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과 응웬 응옥 칸(Nguyen Ngoc Canh) 베트남 중앙은행(SBV) 부총재가 면담을 진행한 후 포즈를 취했다. /신한은행

### 신한은행 베트남 경제사절단 참여 금융·산업기관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주관 베트남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베트남 중앙은행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현지 주요 금융·산업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제사절단 참여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금융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금융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1993년 한국 금융기관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현지 영업 기반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번 일정을 계기로 기업금융, 디지털 금융, 리테일, ESG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상혁 은행장은 응웬 응옥 칸(Nguyen Ngoc Canh) 베트남 중앙은행(SBV)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협력 및 디지털·ESG 분야의 노하우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정행장은 베트남 국영 상업은행 비엠클롬은행의 레 광 빈(Le Quang Vinh) 은행장과 면담하고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한강벨트’ 아파트 잘 팔리고 강남은 매물 쌓인다

서울 아파트 매물 소화 양극화  
성동·마포 등 7개구 흡수율 37%  
강남·서초 등 핵심 4구 17% 그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 소화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매물이 소화되고 있지만 강남 등은 대출과 실거주 규제로 매물만 쌓일 뿐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27일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팩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성동·마포·광진·영등포·동작·양천·강동

등 한강벨트 7개구의 매물 흡수율은 36.9%를 기록했다. 반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핵심 4구의 흡수율은 16.6%에 그쳤다.

매물 흡수율은 해당 기간 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 중 실제 거래된 비율을 말한다. 정부의 매물 유도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수급 해소로 연결됐는지를 알 수 있다.

한강벨트의 경우 새 매물 10건 중 약 3.7건이 팔리나갔지만 핵심 4구는 1.7건만이 팔렸다. 지난 2월 매물 흡수율인 한강벨트 24.9%, 핵심4구 11.7%와 비교하면 3월 들어 격차가 확대됐다. 2월 한달간 두 권역에 새로 올라온 매물량은 약 5500~5600건으로 비슷했지만

실제 체결된 거래는 한강벨트가 2배 이상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양천구가 매물 흡수율이 54.4%로 가장 높았으며 ▲영등포 50.7% ▲마포 46.3% ▲동작 4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양천구는 새로 나온 매물 10건 중 5.4건이 당월에 바로 거래됐다.

강남권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강남구의 3월 흡수율은 13.7%에 머물렀고, 서초구는 7.3%로 분석 대상 11개 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초구는 2월(7.5%)보다도 흡수율이 하락해 매물이 갈수록 팔리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매물 소화 양극화의 원인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다.

양 전문위원은 “한강벨트 구축 아파

트는 중위가격이 10억~13억원대로 대출 규제의 영향을 피해 실수요층이 적극적으로 매물을 받아내고 있다”며 “30억~40억원대에 달하는 강남권 아파트는 매수자가 최소 30억원 이상의 막대한 현금을 보유해야만 진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9일 이후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양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으로 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대출 및 실거주 규제가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며 “5월 9일 이후 정부의 보유세 개편이나 추가 규제 시그널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물 소진에 박차를 가할지, 아니면 매물 회수 후 장기 보유로 선회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반도체 투톱, 인재상 달랐다... 삼성 '문제해결' SK '전문성'

삼성전자 대규모 정공채 유치  
공통역량 바탕 다양한 직무 배치

SK하이닉스 직무별 역량 세분화  
업황 등 상황에 따라 채용규모 조정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2026년상반기 채용 전형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형 설계에서 서로 다른 인재상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공통 기본기를 먼저 검증한 뒤 직무 배치로 이어지는 삼성과, 서류 단계부터 직무를 세분화해 직무 수행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SK하이닉스다. 채용 전형에서 무엇을 먼저 검증하느냐의 차이가 각사의 인재 운용 방식과도 맞물려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5~26일 이틀간 삼성직무적성검사(GSAT·Global Samsung Aptitude Test)를 실시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등 1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GSAT가 창의적 사고 역량과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설명한다.



삼성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18개 삼성 관계사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이틀 간 2026년 상반기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감독관이 응시자를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진행하는 모습.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새 채용 브랜드 '탈런트 하이웨이(Talent hy-way)'를 통해 설계·연구개발(R&D) 공정·전략기획·영업 등 26개 직무 분야 신입 서류 접수를 마쳤다. 이후 SK종합역량검사(SKCT)와 인공지능(AI) 화상 인터뷰 'A!SK'를 이달에 병행 진행하고 있다. A!SK는 서류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가치관·문제 해결 과정·직무 이해도 등을 비대면 영상 인

터뷰로 종합 평가하는 전형이다. 두 회사의 차이는 직무 설계와 평가 순서에서도 확인된다. 삼성은 공정·설계·설비 등 직무군 단위로 모집한 뒤 GSAT를 통해 공통 역량을 먼저 검증하고 면접에서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구조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서류 단계에서부터 DRAM개발·제조기술·패키징(PKG)·테스트(P&T) 등 세부 직무로 나눠 선발하고, 전형 전반에서 직무

이해도와 수행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채용 기준 차이는 채용 규모 운용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SK하이닉스는 신규 채용 인원이 2021년 3549명, 2022년 3901명에서 2023년 739명으로 줄었다가 최근 다시 확대되는 등 업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

반면 삼성은 대규모 정기 공채 체계를 유지하며 향후 5년간 6만명 채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SK하이닉스의 채용이 업황과 생산 확대 시점에 맞춰 조정되는 채용 구조지만, 삼성은 비교적 일정한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채용 전략 차이는 인재를 선발하고 배치하는 방식에서도 이어진다. 삼성은 공통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무에 적용 가능한 인재를 선발한 뒤 조직 내에서 배치하는 구조로 이해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직무별 요구 역량을 세분화해 해당 분야 이해도와 경험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는 최근 HBM 중심의 생산 구조 변화와 맞물려 직무별 전문성 요구가

높아지는 점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맞춤형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설계·공정·패키지 등 각 단계에서의 역할 구분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HBM 전용 생산 기지인 청주 M15X 팹은 2025년 10월 장비 반입을 시작해 2026년부터 생산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는 채용 확대 시점과 신규 생산 거점 준비가 맞물린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삼성도 이번 상반기 채용에서 적자 여파로 중단했던 비메모리 분야 신입 채용을 1년 만에 재개했다. HBM4 생산에서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비메모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확보 움직임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HBM과 파운드리 등 차세대 공정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채용 단계에서 나타나는 선발 기준 차이가 향후 인력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두산에너지빌리티, 분기 매출 '4조' 장밋빛 전망

가스터빈·대형원전 중심 수주 확대  
업계, 2030년 수주잔고 48조 관측

글로벌 원전 투자 재개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수주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원전 확대 움직임이 강해지는 가운데 SMR을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신규 수주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가스터빈과 대형원전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시장은 원전 건설 확대와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수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차세대 원전 인허가 체계인 'Part 53'을 오는 29일부터 적용하면서 SMR 등 신기술 원전의 인허가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프로젝트 전개 속도가 빨라질수록 원자력과 터빈 등 핵심 기자재 발주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 전경. /두산에너지빌리티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대응 차원에서 신규 원전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 대형 원전 기자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스터빈 사업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해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용 가스터빈 수출을 시작으로 현지 공급 실적을 쌓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기

업과 380MW급 가스터빈 7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SMR은 차기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엑스에너지·테라파워 등 글로벌 SMR 기업들과 협력 또는 공급 논의·계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창원 부지에 8068억원을 투입해 SMR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 2031년 완공 시 연간 20기 제작이 가능하다.

대형 원전과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수주잔고가 확대되면서 실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올해 1분기 매출을 4조658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46% 증가한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19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2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수주잔고가 2030년에는 약 48조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 LG이노텍, 1분기 매출 5.5조... 역대 최대

영업익 2953억 집계... 전년비 136% ↑

LG이노텍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모바일 카메라 모듈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진 데다 고부가 반도체 기판 공급 호조, 차량 카메라 모듈·조명모듈 등 모빌리티 부품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LG이노텍은 1분기 영업이익이 295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수치다.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5조 5348억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부별로 보면 광학솔루션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4조 610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카메라 모듈의 견조한 수요와 함께 차량 카메라의 매출이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최대치를 나타냈다.

패키지솔루션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437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비수기임에도 RF-SiP 등 통신용 고부가 반도체 기판의 공급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성능 메모리 등 신규 애플리케이션으로의 FC-CS P 공급 확대가 지속되며 매출이 증가했다.

FC-BGA 또한 PC용 제품 중심으로 매출이 점진적으로 상승 중인 가운데, 시장 수요에 발맞춘 AI·서버용 하이엔드 제품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빌리티솔루션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487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고부가 제품인 차량 조명 모듈을 필두로 매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9조2000억원의 수주잔고를 기록한 모빌리티솔루션사업부는 올해 자율주행 솔루션을 앞세워 신규 수주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여천NCC, 공장 가동률 60%→65% 상향

"가동률 점진적으로 상향 계획"

국내 최대 나프타 분해시설(NCC) 운영 기업인 여천NCC가 정부의 나프타 수급 안정화 대책에 맞춰 원료 조달과 공장 가동 정상화에 나섰다.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가동률 회복을 통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관련 제품의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천NCC는 공장 가동률을 기존 60%에서 65%로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나프타 구매 보조금 지

원 등 수급 안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가동률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천NCC는 지난달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으로 가동률이 55%까지 낮아지며 추가 가동 정지까지 검토한 바 있다. 이후 정부가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자 지난 10일 가동률을 60%로 높였다.

지난 23일 금융권이 '중동 상황 나프타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점도

이번 추가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여천NCC는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원료 수급 여건 개선에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가동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아울러 중동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그리스, 알제리, 나이지리아, 이집트, 오만, 사우디 등 다양한 산지에서 나프타를 확보하며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여천NCC 관계자는 "향후 수급 상황과 정부의 지원사항을 고려하여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LG전자, AI 분야 등 사내벤처 분사 추진

4개팀 선발... '개방형 성장' 본격화

LG전자가 창업 당시 금성사의 도전 정신을 계승한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사업을 외부로 확장한다. 단순 육성을 넘어 유망 기술을 스타트업으로 분사시키고, 향후 협력 파트너로 키우는 '개방형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7일 LG전자는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 사이언스파크에서 '스튜디오341 데모데이'를 열고 최종 스피노프(분사) 자격을 갖춘 사내벤처 4개 팀을 선발했다

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세카'는 하드웨어 설계 데이터 오류를 탐지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했고, '머신플로우'는 코드 품질 개선을 위한 기업용 AI 코딩 에이전트를 선보였다. '프리카키펀'은 주방 자동화 로봇과 이를 운영하는 B2B 솔루션을, '아도머'는 펌프 기술 기반의 첨단 난연 소재 설계 솔루션을 각각 확보했다.

이들 팀은 오는 7월 중 분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팀당 최대 4억원, 총 16억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받는다.

/구남영 기자

# “선용품 유통 넘어 조선·에너지·방산 밸류체인 구축 속도”

##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 김명진 매일마린 회장

부산서 출발한 해양 전문기업  
1만여 제품 100여 파트너에 공급  
세화기계·SAS·삼양통상 품어

엔진부품·구조물 제작 역량 확대  
매일세라캠 통해 스텔스도로 개발  
국방·원자력·보안 시장 정조준  
글로벌 마린테크 기업 도약 선언

선박 운항에 꼭 필요한 선용품 유통업  
에서 시작한 부산의 토종기업 매일마린  
이 선박엔진 부품·선박 구조물 제작 그  
리고 에너지·방산까지 넘나들며 글로벌  
해양 테크 그룹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본  
사가 있는 부산을 중심으로 창원, 진해,  
경주까지 '사각 편대'도 완성했다.

김명진 매일마린 회장(사진)은 “선용품  
유통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조선해  
양, 에너지, 첨단 소재 기술 분야에 녹여



김명진 매일마린 회장이 경남 창원에는 공장에서 생산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내고 있다”면서 “조선과 방산을 하나로  
 묶는 통합 밸류체인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 해양 산업의 지도를 바꾸는 ‘글로벌  
 마린 테크 자이언트(Global Marine  
 Tech Giant)’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선용품산업협회장과

중소기업경영혁신(메인비즈)협회장을  
 겸하고 있다.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출신  
으로 미국의 AMOCO OIL TANKER  
에서 항해사로 근무하다 1992년 당시 매  
일마린을 설립했다. 법적으로는 3년후  
 전환했다.

선용품(Ship Chandler)이란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한달 이상 바다를 누  
벼야하는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식자재  
와 각종 소모품 등을 말한다.

김 회장은 “최적화된 선용품 공급은 해  
운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필수 요소로,  
매일마린은 4만여 종에 달하는 선용품 가  
운데 1만여개 물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100여개 파트너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면서 “특히 전국 주요 항만 24시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고 동종업계 중에선 장  
기근속과 전문성이 뛰어난 회사라고 자  
부하며 이때문에 우리를 ‘선용품사관학  
교’로도 부르고 있다(미소)”고 전했다.

김 회장은 매일마린 기준 50여명의 임  
직원과 약 300억원 규모의 연매출을 바탕  
으로 사업계열화 완성을 위해 잇따라 기  
업들을 인수하며 회사를 키워오고 있다.  
터보차저 등 선박 핵심 기자재 가공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북 경주의 세

화기계(2018년), 조선 및 육·해상 발전  
플랜트 제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남 창  
원의 에스에이에스(SAS), 해운 물류사  
인 삼양통상(2025년)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은 “한때 국내 최고의 셀 가공  
기술을 보유하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이었던 SAS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주  
요 해외 고객사의 파산으로 회생절차까  
지 밟게 돼 매일마린 플랜트 사업부로 합  
병하게 됐다”면서 “SAS 인수를 통해 현  
대중공업 특수선 및 군함의 블록, 래싱  
브릿지 등 제작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단  
지 조성에 필요한 대형 구조물 제작, 글  
로벌 프로젝트 참여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에는 플랜트 사업부는 항  
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조선분야  
등으로 확장해 글로벌 시장을 추가 공략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매일마린 관계사로 첨단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매일세라캠의 성장  
가능성에 무엇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매일세라캠은 최근 고성능 경량 방탄 및  
보온 불연, 방음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그는 “스텔스도로’라고도 불리는 신  
소재는 기존 소재보다 두께가 얇은 1cm

정도만으로도 NIJ 레벨 III-A급의 방탄  
성능을 유지하며 1100°C의 화재에도 4시  
간 가량 견딜 수 있는 내화 성능을 갖추  
고 있다”면서 “해군 함정, 군용 차량, 원  
자력 및 보안 시설 등 고부가가치 시장  
을 선점할 핵심 사업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매일세라캠이 선보일 스텔스  
도로는 2년 내에 실제 매출이 일어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  
양한 채널을 통한 기부, 지역 소상공인  
들과의 상생 생태계 구축 등 기업의 사  
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서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동명대 등 지역 대학 졸업생  
적극 채용, 모교인 한국해양대와 일·학  
습병행사업 참여 등 해양 인재 양성에  
도 앞장서고 있다.

김 회장은 “기업과 사회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사회적기업이  
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ESG 경영, RE100은  
중요하다”면서 “매일마린은 어느덧 5개사  
를 거느리는 회사가 됐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향후 추가 M  
&A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  
했다. /창원·부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텅 빈 운전석, 스스로 판단”... 로보택시 시대 성큼

### YG의 CAR TALK

#### Pony.AI 로보택시

중 경제기술개발지구서 20km 시승  
시장 골목 돌발상황도 매끄럽게 대응  
비보호 좌회전·끼어들기 안정 통과

운전자가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도로  
상황을 판단하는 ‘운전자 없는 택시’ 로  
보택시가 더 이상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닌 현실이 됐다.

한때 잇따른 사고와 과잉 기대 속에서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체  
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 모  
빌리티 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 서두우 국제



Pony.AI의 자율주행 레벨4 기술을 적용한 아크폭스의 알파 T5 로보택시 차량.

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가량 이동  
해 도착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지구에서  
현지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닷에이  
아이(Pony.AI)가 운영하는 로보택시  
(아크폭스 알파 T5 차량)에 탑승해 레  
벨4 수준의 자율주행 성능을 체험했다.  
차량에 탑승해 뒷좌석 스크린에 스타

트 버튼을 누르자 차량은 스스로 주변  
교통 흐름을 읽으며 주행을 시작했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옆 차선의 차량의  
이동을 읽고 앞서 주행중인 오토바이의  
속도를 인식해 대응하며 복잡한 도로에서  
부드러운 주행을 이어갔다.

좁은 시장 골목에서는 순식간에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과 자전거,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느긋하게 가로질러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읽고 예상보  
다 과감하고 정교하게 대응했다. 교차  
로 대기 후 비보호 좌회전 상황에서도  
맞은편 도로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  
의 거리와 속도를 계산해 안전하게 통과  
했으며 위험을 감지한 순간에는 차량 스  
스로 크라션을 울렸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레이저 레이더,  
밀리미터파 레이더, 카메라, 위성 등 다

중센서 데이터를 유입해 차량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뒷좌석에 있는 모  
니터에서는 차로와 교통 신호, 보행자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를 바탕으로 사람이 대응하기 힘든 복잡  
한 상황에서도 Pony.AI의 자율주행 시  
스템은 도로 환경을 빠르게 읽어가며 약  
20여km 구간을 안정적으로 주행했다.

이번 시승은 자율주행 업체들이 하드  
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  
티(SDV) 시장에서 얼마나 앞서가고 있  
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Pony.AI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베이징과 광  
저우, 한국, 두바이,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무인 주행 허가를 취득하  
며 독보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베이징=양성운 기자 ysw@

## 벤처기업 AX 혁신지수 48점 AI 의지 높지만 인프라 부족

국내 벤처기업들의 인공지능 전환(A  
X) 혁신지수가 100점 만점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평균 48점에 그쳤다.

기업들이 AX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구축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특히 경영진의 AI 이해도 및 도입 의  
지는 66점 수준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이  
를 뒷받침할 디지털 인프라 수준은 29점  
으로 가장 낮은 등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가 컸다.

이같은 내용은 기술보증기금이 437  
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벤처기업 AX혁신지수 실태분석’ 결과  
에서 나왔다. 이번 조사에는 기보가 자  
체 개발한 AX혁신지수가 활용됐다. A  
X 단계는 기초→준비→구축→혁신→  
선도로 나뉜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의 AI 이해도  
및 도입 의지(65.8점)와 디지털 인프라  
수준(28.8점) 간 점수 차가 컸다. 다수  
기업이 AX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실행 기반이 열  
악한 상태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서  
비스업(58.9점)과 제조업(39.3점) 간 격  
차도 존재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창업기업이 대규모·비창업기  
업보다 AX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었  
다. 매출액 10억 이하 기업과 창업 3년  
이하 스타트업의 AX 혁신지수는 각각  
55.4점, 54.5점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액  
50억 초과 기업(39.5점)과 창업 후 7년을  
초과한 기업(44.5점)보다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호남권(53.5점)과 동남권  
(53.1점)이 수도권(48.8점)보다 고득점  
을 획득했는데 이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  
계한 점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  
된다. /김승호 기자

## 中 企 협동조합 설립 문턱 낮아진다

전국조합 발기인 50명→30명  
지방조합 30명→20명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완  
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신  
산업·지역 주력산업 분야 협력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중소기  
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가 전국  
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협동조합  
연합회 가운데 도·소매업종 설립 요건

도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바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판매,  
공동 생산설비 및 물류시스템 구축, 공  
동 연구개발(R&D) 등 개별 기업이 혼  
자 추진하기 힘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약 900개 조  
합이 업종별 특성에 맞춘 협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업종 내 기업 수  
가 적은 신산업 분야와 지역 중소기업들  
은 최저 발기인 수, 최저 출자금 기준 등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  
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으로도 세울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김승호 기자

## 탄소규제 대응 수출 中 企 R&D 지원 착수

중기부, 내달 13~27일 참여기업 모집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  
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3일부터 27  
일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  
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R&D  
사업에 나설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  
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  
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수출 중소기업 핵심 품목(철강·알루미늄)  
의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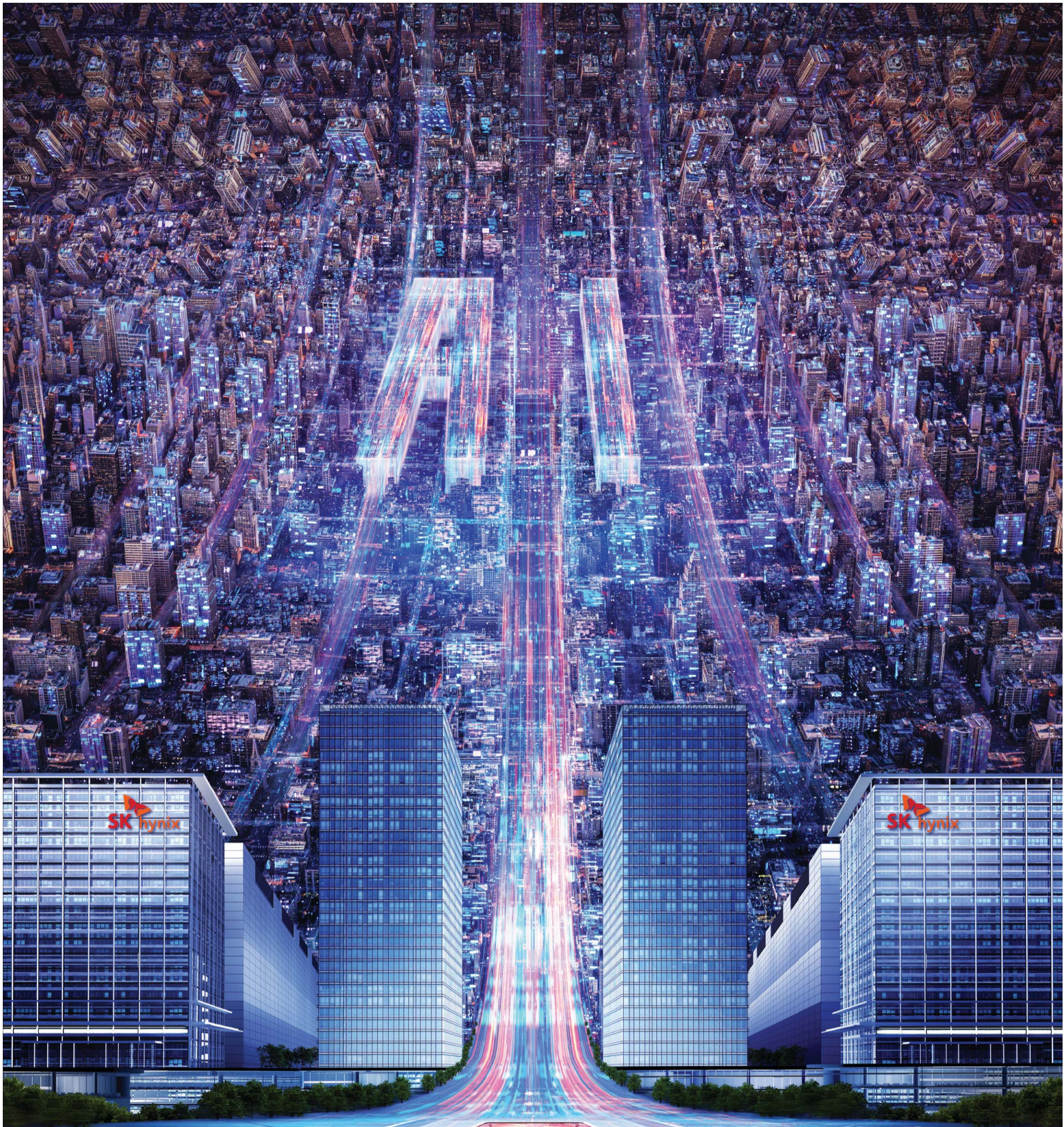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부담을 완화하

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탄소감축  
기술의 개발·확보와 수출 중소기업 현  
장 실증 등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탄소감축 기술을 개  
발·공급할 중소기업 ▲개발 기술을 현  
장에 적용할 수출 중소기업(2개사 이  
상) ▲대학·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  
시엄이다.

세부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현  
장에서 탄소감축 수요가 높은 3대 중점  
기술분야(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 단위  
공정 개선 및 전력저감, 원료·부품 재사  
용 제품화)에서 26개 지정과제(RFP)를  
공모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SK hynix

SK hynix

#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크로스 2.0’ 블록체인 탈중앙화… 스테이킹 파격 보상도”

(연환산 수익률 약 180% 수준)



인터뷰

## 장현국 넥서스 대표

“크로스 2.0은 단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환이다.”

장현국 넥서스 대표는 크로스 메인넷 2.0 ‘브레이크포인트’ 전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탈중앙화 수준과 토크노믹스를 동시에 재설계한 구조적 변화”라며 “초기에는 높은 보상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넥서스는 오픈게임 파운데이션(OGF)이 크로스 메인넷 2.0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가 27일 밝혔다. OGF는 크로스 재단으로 토큰 발행과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넥서스는 개발사(DevCo)로서 생태계 개발과 운영을 맡는다. 이번 전환은 기술 업그레이드뿐 아니라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장현국 대표는 특히 미국 규제 흐름을 중요한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에서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수준이 증권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정 주제, 특히 재단이 토큰을 과도하게 보유하면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구조로 판단돼 규제 리스크



장현국 넥서스 대표가 본지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넥서스

OGF, 크로스 메인넷 2.0 전환 계획  
美 규제 맞춰 노드 개방… 퍼블릭 구조  
스테이킹 초기 참여자에 높은 보상  
韓 규제 정제에 글로벌 경쟁력 우려  
개발·기획 등 대부분 업무 AI 적용  
AI 토큰 사용에 月 2억 이상 투입

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이런 기준에 맞춰 구조를 선제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환에서 이용자가 체감할 변화는 스테이킹 보상이다. 기존에는 별도 보

상이 없었지만 2.0부터는 스테이킹 참여자에게 토큰 보상이 제공된다. 현재 연환산 수익률(APR)은 약 180% 수준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은행 이자처럼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다”며 “프로젝트 초기 단계인 만큼 참여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준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 기간만큼 보상이 쌓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를 ‘이자’로 표현하지 않는다. 자산을 예치해 수익을 얻는 금융 개념과 달리,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reward)’ 성격이

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고수익 구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스테이킹은 토큰을 매수해 일정 기간 묶어두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가격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구조 역시 변화한다.

기존에는 재단이 노드를 직접 운영했지만, 2.0부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퍼블릭 구조로 전환된다. 그는 “노드를 외부에 개방해 참여자를 확대하는 것이 탈중앙화의 핵심”이라며 “운영 주체를 분산시켜 신뢰 구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 논쟁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CBDC, 은행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은 기술적으로 동일한 기반에서 출발한다”며 “중앙은행은 CBDC, 은행은 예금 토큰, 민간은 스테이블코인을 담당하는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테이블코인을 특정 금융 기관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에서 경쟁과 혁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주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방형 시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그는 “한국은 법이 없으면 시도조차

어려운 구조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디지털 금융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 방향과 속도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글로벌에서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국내는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I 전환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장 대표는 “조직 전반에서 AI 활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개발, 기획, 고객 대응 등 대부분의 업무에 AI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I 토큰 사용 비용만 월 2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사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는 “앞으로는 사람이 아닌 에이전트가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은 기획과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뀐다”고 전망했다. 이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개한 ‘Nexus AI Labs’ 역시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이다. 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몇 시간 내에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며 “내부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빠르게 제품을 만들고, 검증된 서비스는 외부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에이닷으로 가족 보이스피싱 위험 막는다

SKT, 에이닷 전화에 ‘가족케어’ 도입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탐지하면  
보호자에 위험상황 알림 즉시 전송

SK텔레콤은 에이닷 전화에 ‘가족 케어’ 기능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가족 케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탐지하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위험 상황을 즉시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보호자는 에이닷 전화 설치 여부나 통신사와 관계없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에이닷 전화를 설치한 보호자에게는 푸시 알림과 문자가 동시에 전송되고, 미설치자는 문자로 알림이 발송된다.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의 경우 112 또는 119 긴급번호 발신을 시도할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긴급 상황 알림이 전송된다.

보호자 등록은 이용자 1명당 최대 10



SK텔레콤이 에이닷 전화에 ‘가족 케어’ 기능을 선보인다. SK텔레콤 모델들이 가족 케어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명까지 가능하다. 연락처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다. 보호자가 SKT 이용자일 경우 가족 결합 목록이 최상단에 노출되고, 가족

외에도 지인 등록도 가능하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려면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필수다.

/조민선 기자 msjo@

## 삼성SDS, ‘챗GPT 에듀’ 판매권 확보

데이터 프라이버시·보안 강화

삼성SDS는 오픈AI 서비스 ‘챗GPT 에듀’ 상품 판매 권한을 추가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챗GPT 에듀는 학교, 출판사 등 교육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강화됐다. 교사와 학생 등 사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주고받는 대화와 응답이 AI 학습 데이터에 활용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챗GPT 에듀는 GPT-5 언어모델을 활용한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텍스트 이해 및 생성, 코딩, 데이터 분석 등이다. 이 밖에 웹 브라우징, 문서 요약, 맞춤형 챗봇 제작 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교육·연구 분야에서 생성형 AI 도입을 원하는 학교, 출판사, 교육기관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양시간 도입을 위해 개념증명(PoC)을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옥스퍼드대학교, 런던대학교, 와튼스쿨,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AI 컨설팅, 클라우드·보안 등을 아우르는 원팀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기업의 AI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엔드 투엔드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 리셀러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이후, 챗GPT 엔터프라이즈 공급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기업용 생성형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 네이버웹툰, 스페인 불법사이트 폐쇄 공조

저작권해의진흥협회와 공동 조치

네이버웹툰은 저작권해의진흥협회와 공동으로 해외 대형 불법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페인 사법 당국에 의한 조치로,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사와 현지 법에 직접 대응해 성과를 이룬 첫 사례다. 카카오펀터테인먼트, 리디 등 저작권진흥협회(COA) 권리사들이 직접 조사를 통해 스페인 내 불법 사이트 운

영진을 특정했다. COA가 현지 수사기관 및 사법 당국과 적극 협력해 폐쇄 조치했다.

조치 대상은 다수의 서비스를 거느린 스페인어 기반 대형 불법 웹사이트다. 웹툰 권리사 조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월 방문 횟수 약 8600만 건 수준이다. 업계는 해당 사이트들로부터 발생한 피해액이 수백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정식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네이버웹툰은 웹툰 불법 유통으로부터 창작자의 수익과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AI 기반 불법 유통 차단 기술인 튜레이더를 고도화해 불법 복제물을 사전 차단하고 유출 시점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국과 글로벌 서비스의 연재 시차를 없애 ‘글로벌 동시 연재’ 전략도 병행 중이다. 동시 연재를 도입한 작품은 유료 결제액이 휴재 전 대비 최대 200% 이상 증가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불법 웹툰 대응 전담 조직인 ‘안티 파이러시’를 통해 불법 웹툰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 엘리스그룹, 정부 AX·클라우드 사업 선정

‘엘리스클라우드’ 중심 AI 전환 성과

엘리스그룹이 정부 AX·클라우드 지원사업 공급기업에 선정되며 기업 대상 AI 전환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

27일 엘리스그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AX 원스톱 바우처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엘리스그룹은 AI 특화 클라우드 ‘엘리스클라

우드’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AI 전환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AI 인프라 기술력과 클라우드 서비스 안정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표 솔루션인 ‘ECI(엘리스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가상화 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으로, GPU와 NPU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규모 AI 클러스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엘리스AI클라우드 ML API’는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 AI 모델을 유연하게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빛나 기자

# 외국인 귀환 중심엔 반도체... 삼성·하이닉스 '폭풍 매수'

이달 들어 코스피 약 3.4조 순매수 실적 호조, 투자심리 회복 이끌어 AI 인프라 확대 따른 구조적 성장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몰리는 투자자 수요' 관련 이미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발을 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반도체로 향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조43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 투톱은 합산 3조5000억원을 사들이면서 코스피 총 순매수 금액을 뛰어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외국인들이 몰려 들고 있다.

## ◆K-반도체주, 안보고 산다

자금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다.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수 1위는 SK하이닉스로 1조7814억원, 2위는 삼성전자로 1조72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달과 정반대 흐름이다. 외국인은 지난 달 삼성전자를 18조2438억원, SK하이닉스를 8조1492억원 순매도하며 각각 순매도 1·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외국인의 반도체 사랑은 ETF 매수세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이 약 60% 수준인 'TIGER MSCI 코리아 TR'을 5101억원 이상 순매수하며 투자를 집중했다. 유사한 구조의 'KODEX MSCI 코리아 TR'에도 약912억원이 유입되면서 3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삼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은 약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75%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메모리 탑재량이 늘면서 비용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 저항도 구

조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37만610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5.5%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52만5763억원으로 198.1% 늘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에 대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반영해 2026년 및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9%, 4% 상향 조정한다"며 목표가를 상향했다. 노무라증권은 2026년 영업이익 전망으로 올해보다 492% 증가한 280조원, 2027년은 2026년보다 36% 늘어난 379조원을 각각 제시했다.

수가 지속될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는 평가다. 주요 측면에서 AI 가속기 성능을 좌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부품이 됐다.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이 메모리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공급 구조 변화도 '메모리 병목' 현상을 만들었다. 공정 고도화와 HBM 중심 생산 전략이 맞물리면서 범용 디램 생산 여력이 줄었다. 제한된 생산라인에서 HBM 비중이 확대되면서 범용 디램(DRAM) 공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28년까지 만성적인 메모리 공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25만~33만원, SK하이닉스는 130만~205만원 수준이다. 유안타증권은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SK하이닉스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되며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 ◆외국인 매수세 이어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 투자 수요 증가 등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이어갈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예상과 다른 시장 흐름이 나타나면 외국인 매도세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역시 관건은 반도체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외국인 순매수의 대부분은 반도체 효과"라면서 "앞으로 외국인 순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 투자 수요 증가 등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이어갈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예상과 다른 시장 흐름이 나타나면 외국인 매도세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역시 관건은 반도체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외국인 순매수의 대부분은 반도체 효과"라면서 "앞으로 외국인 순매

역시 관건은 반도체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외국인 순매수의 대부분은 반도체 효과"라면서 "앞으로 외국인 순매



godhe@metroseoul.co.kr



# 상장사 임원 보수, '성과표'와 함께 공개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공시서식 개정 내달부터 임원 보수 현황 공시해야

앞으로 상장사는 임원 보수를 기업 성과와 함께 공시해야 한다. 보수의 적정성을 투자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가 대폭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보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서식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장사는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임원 보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수와 성과의 연결'이다. 기존에는 이사·감사 보수총액만 제시돼 기업 실적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이익률(TSR) 등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연도별 데이

터를 나란히 비교하는 표 구조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는 '성과대비 보수' 수준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TSR을 포함한 점은 의미가 크다. 단순 이익이 아니라 주가상승과 배당까지 반영한 지표로 통해 경영진 보상이 실제 주주 가치와 얼마나 연동되는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내에서도 '페이 포 퍼포먼스(Pay for Performance)' 검증 체계가 도입되는 셈이다.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스톡옵션뿐 아니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RSU 등 다양한 주식보상에 대해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지급액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미실현 잔액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여에 포함되거나 별도 항목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가 하나의 표로 통합되면서, 임원 보수의 실질 규모와 미래 보상까지 한눈에 드러난다.

개인별 공시 체계도 정교해졌다. 5억

원 이상 임원의 보수 내역 아래에 주식보상 부여·행사 현황을 함께 배치하도록 해, 투자자가 특정 임원의 보수 구조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가능 수량, 미지급 물량, 시장가치 등 세부 항목까지 공개되면서 '숨은 보수'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시 기간 역시 확대된다. 기존 단년도 기준에서 3개년 비교 공시로 바뀌면서 임원 보수의 증감 추이와 기업 성과 간 관계를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수 총액도 급여, 상여, 주식보상, 기타소득 등으로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형식 변경을 넘어 지배구조 개선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의 임원 보수는 '성과와 무관한 보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이를 직접 검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자본시장포럼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 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출범

미래 10년 청사진 제시 산학연·업계 전문가 집결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K-자본시장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 제시를 목표로 장기 성장 전략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자본시장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초 K자본시장 본부를 신설하고,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제 발굴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포럼 출범을 준비해왔다.

포럼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자본시장연구원, 기업, 증권업계, 학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약 100명 규모의 전문가 그룹이 실무 협의체와 워킹그룹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공한다. /허정윤 기자

## 예탁원, 생성형 AI 업무시스템 고도화

지능형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

한국예탁결제원이 생성형 AI 기반 업무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내부 업무 전반에 AI를 접목한 '디지털 전환(AI)'에 속도를 낸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업무망 생성형 AI 서비스 'AIWorks(아이웍스)'를 고도화해 지능형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AIWorks는 내부망에서 생성형 AI

를 활용해 규정 검색과 코딩 지원 등을 수행하는 업무 포털로, 지난해 12월 금융권 유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번 고도화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변경 승인에 따라 추진되는 후속 조치다.

핵심은 AI 성능과 활용 범위 확대다. 예탁결제원은 기존 GPT-4o 기반 모델을 최신 AI 모델로 업그레이드해 질의 응답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였다. 동

시에 AIWorks와 내부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표준 API를 구축해 업무 확장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특히 사내 메일과 메신저 등 디지털 업무환경(DWP)과 AI를 연계한 점이 눈에 띈다. '스마트 메일'과 직원용 챗봇을 도입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임직원이 일상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보안과 통제 기능도 함께 강화됐다. 개인정보 입력 차단, 로그 관리 등 단일 통제 체계를 적용해 내부망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정윤 기자

## 신영증권,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앞장

금정호 대표이사 사장 챌린지 동참

신영증권은 금정호 대표이사 사장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범사회적 실천 운동으로,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대두된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금사장은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릴레이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이사 사장(맨 가운데)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신영증권

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추천했다. /신하은 기자

# 농협개혁 1차안 내달 입법 추진 정부, 6월까지 2차안 제시 방침

**농식품장관, 세종서 간담회**  
직선제 전환 등 개정안 처리 희망  
조합원 94.5%·국민 95.1% 찬성  
감사위 설치·감독권 확대도 추진  
정치쟁점화 우려에 속도전 강조  
비료·농업용필름 수급 안정 전망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 관련해, 오는 6월까지 2차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회장직 직선제 전환 등을 담은 1차 개정안의 경우 5월 중 입법 마무리를 희망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간담회)를 갖고, 농협중앙회 개혁에 대한 정부 측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일부 조합장 및 농업인(조합원) 등의 반발에 대해선, 민주주의 사회인만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전국 각지의 농협 조합원을 비롯해 국민 대다수가 개혁·재편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일각의 반론·재고 요구 등을 존중하되, 1차 개정안 입법과 2차 안 제시는 당·정이 내부적으로 협의한 시간표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송 장관의 방침이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1차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마쳐야 정치 쟁점으로서의 비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전 완료를 위해서 입법을 서두른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농협 개혁을 논쟁만 하고 지지부진하게 끌면 우리 농업인한테 손해일뿐더러 국민들한테도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속도감 있게 일단락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줘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미) 입법 제안된 건 5월 중에 하연(본회의 통과되면) 어떨까 희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발의안이 지방선거날을 넘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세종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있다. /농식품부

시 “정치적 쟁점으로 결합하게 될 것 같은... 좋지 않은 그림 같다”고 했다.

이는 선거 결과(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에 따라 일부 지자체·정치세력이 정무적 반론을 쏟아 내면, 개정안이 의외로 길게 계류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또 지선 이후 2차 개정안을 내놓고자 하는 정부 입장과는 맞닿아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설명회 초입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지난주 국민들·조합원들 샘플을 뽑아서, 농협 개혁에 대해 필요성 내지는 찬성 여부를 설문해 의뢰했다”며 “조합원의 경우 94.5%가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또 국민 95.1%가 필요하고 찬성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부항목 답변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농협 감사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 86%, 국민 93%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직선제는 조합원 83%, 국민 91% 찬성이다. 감독권 확대도 조합원 67.5%, 국민 85% 찬성”이라며 “많은 의견이 함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압도적으로 개혁에 대해 열망하는 분위기가 있다.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도 여러 명이 수없이 많은 의견을 준다. 지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니까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여하튼 (농식품부 주관) 권역별설명회를 계속 할 것이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반론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속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중동사태발 비료 및 농업용필름 수급 문제 관련해서는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으로 8월 말까지는 비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비닐도 6월까지 원료가 확보돼 있다”고 했다.

그는 “비료 사용량의 97%가 농협을 통해 공급되는데, 지난해 말에 올해 쓸 비료량을 정해 미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 수요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농협 단위로 파악해보니 지역별로 재고가 부족한 지역이 있어 지역 간 물량 조정, 계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필요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도 언급됐다. 송 장관은 “휴전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상황이... 중동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추경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료, 원예, 축산, 식품 등 7개 부문으로 나뉘, 매일 가격이란 공급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업인이나 국민들 삶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서부발전, 소통·구매상담 상생모델 선포

서산에서 ‘WP 시너지 데이’ 개최

한국서부발전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소통과 구매 상담을 결합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선포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충남 서산에서 ‘더블유피 시너지 데이(WP Synergy Day)’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 정복 서부발전 사장을 포함한 본사 및 사업소 담당자 30명과 수탁기업협의회, 참여 희망 중소기업 임직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일방향 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서부발전 동반상생 담당자와 중소기업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구매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참여형 상생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

히 올하는 기계·전기·제어 등 서부발전 사업소 분야별 수요와 중소기업의 공급 역량을 직접 연계하는 일대일 현장 매칭 구매상담회를 처음 도입해 참여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참여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뿐만 아니라 ▲서부발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력재단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술보호 제도 등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정책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소통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며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24일에는 본격적인 일대일 맞춤형 구매 상담이 진행돼, 각 사업소 담당자와 기업 간의 실무 중심 협력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매립가스 기술로 볼리비아 탄소감축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타크루즈 매립장서 메탄 감축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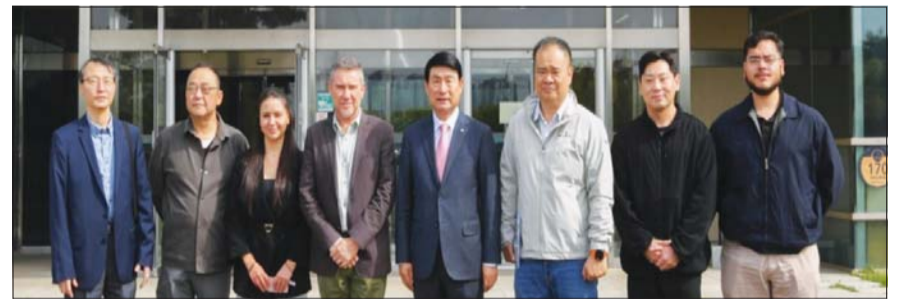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한국을 찾은 볼리비아 대표단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르헤 아빌라 기획개발환경부 차관이 이끄는 볼리비아 정부 대표단은 지난 23일 인천 서구 소재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사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시설을 둘러보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해 우리 측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정보·의견 등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볼리비아 정부와의 ‘국제감축사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송병익 공사 사장은 대표단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현황을 비롯해,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활용한 감축사업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또 양국 간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볼리비아 대표단은 공사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매립가스 발전시설, 침출수 처리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실제 운영 기술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공사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공사는 현재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시 산미구엘 매립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사업 확대 가능성과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이달 23일 인천 서구 본사에서 볼리비아 정부 대표단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중부발전, 동반성장 평가 11년 연속 ‘최우수’

134개 공공기관 중 유일한 기록  
해외사업장 열어 中企 수출길 넓혀  
KOMIPO FACTORY로 업 전환 지원

한국중부발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독보적인 상생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체 134개 대상 공공기관 중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기록한 곳은 중부발전이 유일하다.

27일 중부발전에서 따르면, 중부발전은 그간 공공기관 최초로 해외 발전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독창적인 모델을 구축해 왔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운영 중인 해외사업장을 중소기업의 실증 시험장(Test-bed)으로 개방하고, 현지 발주처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해 진입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장벽을 낮추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라는 산업적 변화에 발맞춰 협력사들의 ‘업의 전환’을 집중 지원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동반진출 연구회’ 운영은 물론, 발전사 최초의 현지 생산

거점인 ‘KOMIPO FACTORY’를 인도네시아에 준공해 협력사에 무상 제공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5년 협력사 수출액은 2495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혁신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중부발전은 발전 현장의 데이터와 실증 공간을 민간에 과감히 개방하고, 국산 NP-U(인공지능 반도체) 현장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공지능 전환(AI)을 선도하고 있다.

실질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AI 누수 탐지 시스템’은 95%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설비 감시 로봇’ 도입 이후에는 발전소내 설비 인명사고 제로(Zero)를 실현하는 등 안전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친환경 컨테이너선’ 국내인도 순항

해양진흥공사, 금융지원 결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실시한 친환경 선박 대상 금융지원의 결과, 국내 선사가 발주한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선’ 8번째 선박이 국내에 인도됐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이달 상순 전남 영암 소재의 HD현대삼호에서 HMM의 9000TEU급(1TEU=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 컨테이너선 ‘라임(LIME)’호 명명식이 열렸다. HMM이 국내 선사 최초로 발주한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선이다.

라임호는 기존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기반으로 순항된다. 라임호 선박 건조는 HD

현대삼호가 맡는다. 이는 국내 해운과 조선 산업 간 협력을 강화한 상생의 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HMM은 지난 2023년 국적 선사 중에서 처음으로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선박 9척을 발주했다. 라임호는 9척의 친환경 선박 중 8번째 인도된 선박이다. 이로써 마지막 1척의 인도만 남겨두게 됐다.

HMM의 대규모 친환경 선대 확보는 해진공의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해진공은 국내외 9개 금융기관(국내 4개, 해외 5개)이 공동으로 참여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조금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HMM이 우수한 금융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도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릉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 홍성군, 스마트 수출단지 선정... 신제품 딸기 수출 본격화

비관세장벽 대응 생산기반 확충  
총사업비 9억7500만원 투입  
전용 육묘시설·재배온실 신설  
ICT 융복합 설비 7종 도입  
동남아 안정화·중동 판로 확대



홍성군 프리미엄 딸기 아리향.

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신제품 딸기의 안정적인 수출 생산 기반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수입국의 검역 및 안전성 기준 강화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스마트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성군은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출 조직의 전문성과 품목 차별화 전략을 인정받아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충남도 내 선정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총사업비 9억 7500만 원(국비 3억 9000만 원, 지방비 3억 9000만 원, 자부담 1억 9500만 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 대상자인 '홍주아리향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홍성군 첫 딸기 수출 이후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리향'과 '핑크캔디'를 중심으로 수입국 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스마트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출 전용 육묘장 2동 및 재배 온실 12동 신축 ▲ICT

융복합 설비 등 스마트팜 핵심 기자재 7종 도입 등이 추진된다. 홍성군은 생산부터 저온 유통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화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품질 규격 생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홍성군과 충남도의 다각적인 수출 정책 지원을 통해 홍성군 딸기 수출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만 5000달러(1.8톤)에 불과하

던 수출액은 2025년 62만 1000달러(34톤)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2026년 3월 기준 이미 85만 5000달러(45톤)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기존 시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동 등 신규 유망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다변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비 확보에 맞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 확충과 고품질 생산 체계 구축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권영란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홍성 신제품 딸기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수출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홍성(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울산시

#### 4개 과기원 도시 창업도시 선정

울산시는 정부가 울산을 비롯해 4대 과기기술원이 위치한 대전과 대구, 광주를 창업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은 기존 제조 산업 기반 위에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먼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내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지정, 창업원 신설, 지역대학과의 교육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투자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창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투자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 김해시

#### '러브챌린지' 참가자 모집

김해시가 오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7기 나는 김해술로 - 러브챌린지' 참가자 24명을 모집한다. '나는 김해술로'는 결혼·출산 이전에 '만남' 자체가 중요한 과제가 된 사회 변화에 대응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이다. 이번 7기 행사는 관내 펜션과 김해문화의전당 일원에서 진행되며 커플 피구·수영장 게임·몸으로 말해요·볼링장 데이트 등 교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 경주마 복지 '마필코노미' 출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경주마의 진료·재활과 은퇴 후 삶을 지원하는 자발적 말 복지 기금 프로젝트 '마필코노미(馬-Feelconomy)'를 본격 시작했다. 마필코노미는 희망 마주가 1회 50만원을 기부하면 이 기금이 경주마 진료·재활과 은퇴 후 복지 체계 구축에 투입되는 방식이다. 경주마를 단순한 객체가 아닌 기금 조성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경마 현장에 성숙한 말 복지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첫 번째 기부자는 신우철 부산경남마주협회장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부산샷' 발사·공동운영 협력 공식화

### 부산시-천문원 역할 분담 구제화 한미 협력 토대 운영체계 정비

부산시와 한국천문연구원이 초소형 해양관측위성 '부산샷' 발사와 공동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부산시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부산샷 발사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준비를 본격화한다.

협약배경에는 올 3월 한미 우주협력 협정에 따라 국내 이행 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맺은 부산샷 관련 임무 협력 협약이 있다. 이번 협약은 그 위에서 발사와 운영 단계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규정할 후속 조치다.

부산샷은 해양 미세 먼지 등 대기 환경을 관측하기 위해 개발된 초소형 위성이다. 2022년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천문연구원,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기술 협력으로 제작됐



부산시청 전경.

며 지자체가 직접 위성 제작에 나선 첫 사례다. 편광 카메라는 한국천문연구원, 위성 본체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각각 개발했다.

탑재된 편광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보다 정밀도가 높아 해양과 대기 중 미세 먼지의 크기·성분 분석에 적합하다. 두 기관은 그간 해당 카메라의 성능 검증과 보정 작업을 지속해 관측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해남공룡대축제 안전 준비 총력

해남군, 내달 2~5일 박물관 일원 개최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오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해남공룡대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해남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룡이 살아있다! 해남공룡대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해남공룡대축제는 국내최대 규모 공룡전문박물관인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공룡의 세계로 떠나는 신나는 시간여행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축제기간 3일동안 13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던 만큼 이번에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한 축제 운영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시설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축제 관람객 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총 2,31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황산면 소재지와 박물관 사이 셔틀버스를 운행해 관람객들을 축제장 이동을 원활히 할 예정이다. 황산면 소재지 공룡박물관 진입로는 일반통행으로 운행되며, 셔틀버스만 양방향 운행이 가능하게 운영을 통제한다. 셔틀버스의 운영은 5월 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5일에는 오후 6시까지이다. 셔틀버스는 해남읍 서림공원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코스와 황산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축제장으로 이동하는 코스가 각각 운행한다. 기존 축제장 전체를 순회하던 공룡 열차의 운행 구간을 조정해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 관람객들이 붐비는 주요 버스 인근은 차없는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경주 황성공원 도시바람길숲 1단계 개방

총 130억 투입 단계별 추진

경주시가 황성공원 도시바람길숲 1단계 조성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시는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 사업의 하나로 해당 구간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부터 시민 이용을 시작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공원의 본래 기능과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도심 내 쾌적한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1·2단계로 나뉘어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구간은 황성공원 북측 계림중학교 맞은편에서 경주시립도서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 교목과 남천, 산철쭉, 회양목 등 관목이 식재됐다.

또 3.6km 길이의 산책로와 9000㎡ 규모 잔디광장, 470m 길이 개천이 조성됐으며, 파고라와 벤치,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됐다.

2단계 사업은 황성공원 남측 청소년수련관 인근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현재 시설설계를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1단계 조성 완료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경북도, 통합돌봄·노동통합 최우수

사회연대경제 중심 지역 모델 구축

경북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통합돌봄과 노동통합 2개 분야가 전국 최우수 모델로 선정되며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돌봄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지역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돌봄 서비스와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북형 지역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통합돌봄 분야는 경로당을 거점으로

한 돌봄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군·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돌봄 앵커 조직으로 육성해 지역 밀착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 방문 지원,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돌봄코디네이터 양성·운영,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의료, 주거, 안전, 이동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n9@

# 백화점 3사, 매출·수익성 개선 '뚜렷'... 1분기 호실적 예고

관광객 증가·내수 활성화 맞물려

신세계 외국인 매출 전년비 90% ↑  
롯데 영업이익 2000억 돌파 전망  
현대 점포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백화점 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하며 함박웃음을 지을 전망이다. 원화 약세에 몰려드는 외국인 관광객과 내수 활성화가 맞물리며 외형 성장을 이룬 덕분이다. 백화점은 계열사 부진을 상쇄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며 유통업계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와 명품 소비 회복이 맞물리면서 주요 백화점 3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백화점 업계의 2월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6% 증가했다. 전달 기록한 18.8%에 이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폭도 확대되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올해 1분기 방문 외래관광객 역시 475만 94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23%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국내 백화점 3사는 나란히 장밋빛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외국인 수요와 명품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세계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컨센서스는 1조 8036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7% 성장하고, 당기순이익은 749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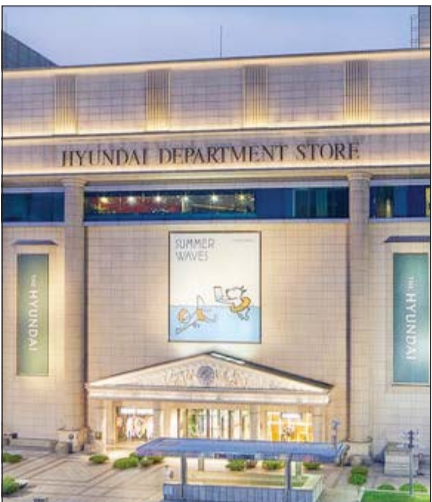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이상 증가했으며, 본점 중심의 명품 매출도 29.8% 늘어났다.

오린아 LS증권 연구원은 "원화 약세와 K-컬처 선호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면세점 중심이던 소비가 백화점으로 분산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롯데백화점은 내수 반등과 외국인 매출 증가에 힘입어 가파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컨센서스는 약 3조 601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8%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영업이익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전경.

/뉴시스

약 207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대만 내 점유율 1위인 '라인페이' 결제 서비스를 전 점에 도입하는 등 대만 관광객을 적극 공략하며 소유품 편의성을 높인 전략이 눈에 띈다.

배승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분기 백화점 3사 중 가장 강한 외국인 성장에 예상된다"며 "최근 외국인 소비 수요를 중국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인 선호 상권에 핵심 점포를 보유한 입지적 장점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본업의 견고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의 백화점 부문 1분기 매출액은 1조 84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1278억 원으로 3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OPM)도 전년보다 1.3%포인트 개선된 6.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인 지누스와 면세 사업의 부진으로 연결 기준 전체 매출은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더현대 서울' 등 주요 점포의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가 본격화되며 본업의 기초체력은 더욱 탄탄해졌다.

권용일 키움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 시즌 백화점 업계의 호실적이 예상된다"면서 "3월 중동전쟁 발발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수출 경기, 내수 소비심리, 소비수요 지표 등이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지수(RBSI)'에서 전체 지수가 79를 기록하며 대형마트(64), 편의점(65) 등 대다수 업태가 기준치(100)를 밑돌며 고전한 반면, 백화점은 유일하게 112를 기록하며 기준선을 웃돌았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CJ제일제당, 베트남 유통망 강화... '국민 브랜드' 도전

1위 유통사 '박화산' 협력 확대  
K-푸드 확산·가공식품 시장 선도

CJ제일제당은 베트남 1위 유통사인 '박화산(Bach Hoa Xanh)'과 협력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박화산은 베트남 최대 리테일 그룹 'MWG' 산하의 슈퍼마켓 체인으로, 전국에 276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박화산에서 비비고 만두, 롤, 김치, 김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4개년 연평균 20% 성장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협력은 베트남 식문화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유통과 제조의 시너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J제일제당의 우수한 제품력 및 콜드체인 노하우와 박화산의 강력한 유통 인프라

를 결합해, 현지 가공식품 시장을 선도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K-푸드 확대 및 베트남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가공식품 공동 개발 ▲식품 안전·품질 관리 체계 고도화 및 냉장·냉동 인프라 투자를 통한 '식품 안전 리더십' 구축 ▲체험 마케팅, K-푸드 페스티벌 등 공동 프로모션, 박화산 애플리케이션 내 'CJ Zone' 운영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친 소비자 접점 확대 및 비비고 인지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박화산과 'K-푸드 확산 및 가공식품 시장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진

행된 협약식에는 조재범 CJ제일제당 식품아태본부장과 응우옌 득 파이 MWG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오 반 푸언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함께해 이번 협력이 가진 전략적 파트너십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15년 제분 사업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최첨단 생산 기지 구축을 통해 식품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해 왔다. 진출 10여 년 만인 지난해 매출이 2016년 대비 약 7배 증가했으며 선제적으로 개척한 만두와 김치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박화산과의 협력을 통해 호치민 등 남부 지역을 넘어 최

근 급부상 중인 북부 지역과 지방 중소 도시까지 K-푸드의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력 제품인 만두, 김치, 롤 등 냉동·냉장 제품 외에도 누들, 스낵 등 상온제품과 육가공 냉장 제품까지 카테고리리를 전방위로 확장한다. 아울러 현지 소비자 입맛과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베트남 유통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박화산과의 파트너십은 CJ제일제당 비비고가 베트남 '국민 브랜드'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시장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K-푸드 확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뚜기 '가뽀한끼' 신제품 출시

오뚜기가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신제품 '가뽀한끼 고단백 닭가슴살 브리또' 2종(사진)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든든함과 가벼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닭가슴살을 넣어 1개당 단백질 15g의 고단백 기준을 충족했을 뿐 아니라, 저당 설계로 저당 기준까지 만족시켰다. 통밀 또피이를 사용해 식단관리 중에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제품은 '가뽀한끼 닭가슴살 브리또 매콤불닭'과 '가뽀한끼 고단백 닭가슴살 브리또 콤비네이션' 2가지로 구성됐다. ▲'가뽀한끼 고단백 닭가슴살 브리또 매콤불닭'은 통밀 또피이에 닭가슴살과 치즈, 매콤 불닭소스를 더해 불향과 치즈의 조화를 살렸다. ▲'가뽀한끼 고단백 닭가슴살 브리또 콤비네이션'은 통밀 또피이에 닭가슴살과 치즈, 채소를 넣어 피자의 풍미를 구현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가뽀한끼 고단백 닭가슴살 브리또"는 단백질 보충과 저당 설계를 동시에 고려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맛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간편식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한국맥도날드 "해피워크 참여하세요"

추첨제 도입... 오후 11시까지 접수

한국맥도날드는 5월 24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해피워크' 참가신청을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올해는 기존 선착순 방식 대신 '추첨제(레플)'를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티켓이 오픈 3분 만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이 이어진 가운데, 디지털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고객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참가 규모도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확대했다. 행사 당일에는 약 4km 걷기 코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 부스가 운영된다.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패밀리 스포츠 이벤트'와 개성 있는 스타일을 선보이는 '맥도날드 패션왕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해피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당첨자는 29일 오후 4시에 발표된다.

/신원선 기자

## 롯데온, 레고·토이트론 등 완구 할인

30일까지 '토이페스타' 행사

롯데온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완구 할인 행사 '토이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레고, 플레이모빌, 나비타월드, 리아보드게임, 에스타, 토이트론 등 완구 브랜드와 마이크로키보드, 스코트앤라이드 등 승용완구 브랜드가 참여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 역할놀이 뷰티샵 세트, 마이크로키보드 제품, 어린이 자전거, 브루더시

리즈, 스코트앤라이드 키보드 등이 포함된다.

행사 기간에는 참여 브랜드 상품에 적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이 제공되며, 카드사별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같은 기간 유아동 상품 행사 '키즈런'도 함께 진행된다. 오르시메, 블루독패밀리, 레노마키즈, 페리미즈 등이 참여해 일부 상품을 균일가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롯데온은 완구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기획전 등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해외입지 탄탄 K-미용... 外人 환자도 문전성시

휴젤·대웅제약, 수출 규모 늘어  
중국·북미 시장 등 공략 박차  
메디톡스, 제품 다변화 극대화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외국인 예약 누적 70만명 돌파  
동남아 급증, 영미권 3.2배 ↑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K-미용의료로 경험하고 있다.

/제미나이 생생 이미지

K-미용의료 산업이 제품 수출과 외국인 환자 유입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날아오고 있다. 중국에 치우쳤던 수출 지도는 북미와 동남아로 확장됐고, 국내 강남 등 주요 지역에는 K미용을 직접 경험하려는 외국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보툴리눔 독신이 포함된 '독소류 및 독소이드류' 수출액은 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4% 급증했다. 특히 중국 89.7%뿐 아니라 베트남 90.3%, 브라질 47.7% 등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압도적이다.

국내 보툴리눔 독신 기업들의 다변화 전략이 의약품 수출 확대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이다.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휴젤은 '포스트 차이나'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휴젤의 독신 및 필러 합산 매출은 지난해 북남미 지역에서 2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9%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 및 기타 지역 매출도 153억원으로 26%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아시아 태평양 매출은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휴젤은 전 세계 주요 거점에서 학술 행사를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광저우 등 6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현지 의료진과 교류한다. 신흥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

대웅제약은 자사 독신 '나보타'를 앞세워 수출 중심의 수익성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나보타는 지난해 전년 대비 19% 증가한 228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수

출 규모는 전년 대비 23% 커졌다. 북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남미, 중동 등을 수출국으로 추가한 성과다.

미국 내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통한 북미 시장 공략이 성장 기반이 됐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나보타의 2025년 미국 매출은 2억 9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오는 2028년까지 매출 5억 달러, 영업이익률 15% 달성으로 목표치도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매년 미국 내 3000개 이상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요 채널인 메드스파, 밀레니얼 진화 병원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도 주력해 충성 고객 확보에도 나선다.

메디톡스도 수익성 반등에 성공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신 제품 '메

디톡스', 차세대 보툴리눔 독신 제제 '뉴릭스' 등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1277억원으로 전체 매출 2473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는 지방개선주사제 '뉴비쥬' 등을 내놓으며 제품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고급 보툴리눔 독신 '코어톡스',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등과의 결합 효과를 높여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다는 복안이다. 최근에는 태국에서 글로벌 의료진 350여 명이 참석한 '해부학 워크숍'을 운영하는 등 아시아 의료 허브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산 에스테틱 제품들의 영토 확장은 미용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데이터로도 증명된다. 글로벌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한국 의료기관을 예약한 외국인은 누적 70만 명을 돌파했다. 대만(25배), 태국(20배) 등 동남아권 예약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미국·캐나다·영국 등 영미권 예약자의 경우 최근 1년 간 3.2배 증가했다.

국내 미용의료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내놓은 K독신 위상이 커지면서 플랫폼이나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관련 정보를 접한 외국인이 방한해 시술받음으로써 다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이뤄지는 '메디컬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유한양행 "일상 속 비강 위생관리"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 선택



유한양행이 일상 생활 속에서 비강 위생관리를 위한 래피코 나잘스프레이액(사진)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래피코나잘스프레이액'은 비강세척제로, 염화나트륨 0.704%를 처방했다. 향료 등을 배제한 최소 첨가제를 함유해 영유아와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분이 순한 것이 특징이다. 체내 환경과 농도가 같기 때문에 코 점막에 자극이나 따가움이 적고, 세척 시 점막이 붓거나 건조해지지 않는다.

또 50mL 대용량 구성으로 약 400회 이상 분사가 가능해 사용 빈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경제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코 안의 이질감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사력으로 자극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신제품은 점액점도 측정소(MCC) 기능을 돕는 물리적 세척력을 갖춰 비강 내 이물질 제거를 돕고 코막힘·콧물·비염 등 감기성 증상을 완화해준다. 미세먼지, 황사, 알레르기 항원 등으로 매일 자극받는 현대인의 비강 환경을 고려한 것도 특징이다. 점막 자극 우려로 사용 기한이 제한되는 비충혈제거제와 차별화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래피코나잘스프레이액은 양치질처럼 코를 매일 세척하는 현대인들의 비강 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시되었다"며 "앞으로도 호흡기용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신뢰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CJ올리브영, 日서 올해 첫 월드투어 시작

내달 '올리브영 페스타 재팬 2026'  
164평 규모... 총 55개 브랜드 선택  
K뷰티 셀렉트존, 뷰티체험 등 운영

CJ올리브영은 오는 5월 8~10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올리브영 페스타 재팬 2026'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페스타는 같은 기간 열리는 'K콘 재팬 2026'과 연계해 진행한다.

'올리브영 페스타'는 2019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국내 최초 뷰티 행사다. 올해는 역직구몰인 글로벌몰을 비롯해 미

국 오프라인 매장 진출, 세포라 파트너십 구축 등 해외 유통망을 확장함에 따라 행사 무대 역시 해외로 넓혔다.

이번 올리브영 페스타 재팬 2026은 164평 규모로 부스를 꾸려 총 55개 브랜드의 제품과 콘텐츠를 선보인다. 올리브영의 핵심 경쟁력인 큐레이션 역량을 집약한 특별 존, 한국 코스메 랭킹존, K뷰티 셀렉트존 등도 설치한다.

한국 코스메 랭킹존은 올리브영 연간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한 '2025 올리브영 어워드' 수상작 중 12개

카테고리의 36개 제품을 소개해 K뷰티 입문자도 실패 없이 한국의 인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K뷰티 셀렉트존'에서는 한국의 체계적인 뷰티 관리법을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 루틴을 제안한다. 특히 현지에서 관심이 높은 기초, 색조, 이너뷰티 세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루틴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 매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인기 뷰티 체험 서비스를 페스타에 적용한다. 터치업 라운지에서

는 올리브영 뷰티 컨설턴트가 원하는 부위의 메이크업을 해주는 킥 터치업 서비스를 선보인다. 바이오힐보존에서는 피부 고민 테스트와 함께 고민별 제품을 추천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페스타 월드투어의 포문을 여는 이번 행사는 현지 고객이 K뷰티를 입체적으로 체험하며 글로벌 K뷰티 팬덤을 확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내와 일본에서의 페스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8월 미국 LA에서 열리는 페스타에서 전 세계 K뷰티 팬들을 매료시킬 압도적인 규모와 한층 진화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HK이노엔, AI 기반 비만치료제 발굴 박차 애경산업 '루나', 봄 담은 메이크업 제안

아토매트릭스와 공동연구개발  
새로운 기전 저분자 후보물질 발굴

HK이노엔이 아토매트릭스와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인공지능(AI)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신약 설계 플랫폼을 활용해, 인크레틴 계열 GLP-1 수용체 작용제 등 기존 비만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기전의 저분자 후보물질 발굴을 목표로 한다.

HK이노엔은 자체 신약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신약 합성 및 생물학적 평가를 수행하며 후보 물질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한다. 아토매트릭스는 자사 신

약 설계 플랫폼 '캔디'를 응용해 후보물질 설계와 선별을 맡는다.

캔디는 인공지능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분석 기법 중 하나인 분자동역학 기반의 신약 설계 플랫폼이다. 표적 단백질과 후보물질의 결합 안정성 뿐만 아니라, 결합 후 나타나는 약효 반응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K이노엔 박병철 신약연구소장은 "기존 비만치료제가 가진 위장관계 부작용, 근감소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인크레틴 계열 신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글로우 레이어 블러 치크'  
신규 색상 2종 선택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에서 봄 신상품으로 '글로우 레이어 블러 치크'(사진)의 신규 컬러 2종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루나 글로우 레이어 블러 치크는 하나의 팔레트에 보습한 블러 파우더와 촉촉한 글로우 밤을 담은 이중 기능성 제품이다. 파우더와 밤, 두 가지 제형으로 다양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각기 다른 명도와 채도를 적용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하다.

루나 글로우 레이어 블러 치크는 고운 입자의 블러 파우더를 적용해 모공을 커



버해준다. 또한 맑은 광택을 더하는 펠팅 밤이 피부에 얇게 밀착돼 덧발라도 텁텁한 느낌 없는 레이어링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루나는 이번 신제품 출시로 기존 컬러를 포함한 총 36가지 컬러 스펙트럼을 구축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다양한 피부 톤과 메이크업 취향을 고려한 컬러 라인업으로 봄 시즌 치크 메이크업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 종근당건강 비타민B·C 6종 담은 '아임비타 비타민젤리'

1일 영양성분 1000% 충족

종근당건강은 최근 비타민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아임비타 비타민젤리'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젤리 제형에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1·B2·B6, 비타민C 등 비타민 6종을 담고 있다. 1봉지는 50g으로 구성됐고 비오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0%까지 충족할 수 있다. 6종 비타민 모두 글로벌 원료 기업 DSM사의 프리미엄 유럽산 원료를 사용해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젤리 안에 비타민젤리가 들어있는 센터 필링 공법을 적용해 탄력적인 식감을 갖췄다. 복숭아·사과 과일농축액을 더해 비타민 특유의 향미를 줄여 간식 대용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아임비타비타민젤리는 에너지 대사와 항산화에 필요한 비타민 6종을 맞춤 설계해 아임비타의 강점을 젤리 형태로 구현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건강 관리를 특별한 루틴이 아닌 일상의 즐거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현대해상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험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 합니다

**H** 현대해상



**LG화학, 차이나플러스서 ‘국내 유일’ 수상**

LG화학이 글로벌 플라스틱·고무 전시회 ‘차이나플러스 2026’에서 스페셜티 소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7일 LG 화학에 따르면 스페셜티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H RTP (Heat-resistant and Recyclable Thermal Plastic)’로 ‘톱10 테크놀로지 엑셀런스 어워드’를 수상했다. 사진은 LG 화학이 기술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는 모습. /LG화학



**SK케미칼, 어르신과 전통문화 봄나들이 동행**

SK케미칼은 지난 25일 파주시 온정종합사회복지관, 노랑풍선과 함께 서울 인사동 및 종로 일대에서 가족 봉사활동 ‘노(老)랑, 봄’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SK케미칼과 구성원과 가족, 어르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케미칼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 27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안성호 대표는 박내원 하이프라자 대표의 지목을 받아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에이스침대



**전북은행 목련회, 지역사회 위한 사랑의 빵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랑의 빵 나눔터에서 ‘도란도란 사랑 나눔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은행 직원으로 구성된 목련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을 찾아 연중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은행 목련회 단원 및 자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은행

**넷플릭스, 자살예방 프로젝트 참여**

넷플릭스가 범정부 자살예방 프로젝트에 참여해 콘텐츠 기반 생명존중 메시지 확산에 나선다. 27일 넷플릭스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생명지킴이추진본부가 추진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자살 사망자를 전년 대비 1000명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이다. 지난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산업부 장관 찾은 한국콜마... 국내 생산 역량 키운다**

**올해 1호 국내 복귀 기업 선정  
유턴기업 투자·생산역량 강화**

한국콜마는 27일 세종공장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콜마에 ‘올해 1호 국내 복귀 기업’ 선정확인서를 직접 전달하고 주요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한국콜마는 중국 내 생산을 우선 공장으로서 일원화하고, 국내 생산 기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공장은 전세계 콜마 생산기지의 핵심 시설로 국내외 4500여 개 고객사로 향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4년 세종공장이 지어질 당시 아시아 내 단일 공장으로 최대 규모였다. 연간 8억 9000만 개의 기초화장품을 생산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콜마 세종공장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과 함께 한국콜마 제조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핵심 품목인 선크림도 전량 이곳에서 만든다.

이날 현장에는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김영구 심택 대표, 이창우 네패스 대표,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 조성현 성우하이텍 부회장, 김

중서 한화엔진 대표, 진창만 태성전무, 김찬용 자화전자 대표 등 8개 유턴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유턴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

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글로벌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초화장품 생산기지가 있는 세종시를 거점으로 생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정책에 맞춰 K뷰티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포스코그룹, 산재 사각지대 해소**

**산재가족돌봄재단 ‘희망이음’ 출범  
5년간 총 250억 규모 기금 출연**

포스코그룹은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7일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룹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재단은 노동·의료·법률·복지분야 전문가들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산재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산재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는 데 기업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특별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적 안전

망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희망이음의 주요 지원 분야는 사고 직후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재해 노동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재해자 돌봄’, 자녀 학업 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 자립지원’ 등 세 가지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제조업 분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재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우선이다. 재단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원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산재 직후 생계 곤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자 돌봄 사업은 재해 노동자의 일상 복귀와 후속 치료를 돕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비급여 치료비, 가족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지난 13일 서울 광흥창에 있는 공연장 ‘CJ아지트’에서 2026 CJ문화재단 튼업 27기 리도어가 실연 심사 공연을 진행했다.

**CJ문화재단, 미래 K-컬처 창작자 발굴**

**창작자 지원 공모 수상자 발표**

CJ문화재단이 인디뮤지션 지원사업 ‘튼업’과 뮤지컬 창작자 지원사업 ‘스테이지업’의 올해 공모 수상자를 발표했다. 두 사업 모두 역대 최대 지원자가 몰리며 창작 초기 단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보여

줬다.

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음악·영화·뮤지컬 분야에서 신인 창작자를 발굴·지원해 왔다. ‘튼업’, ‘스토리업’, ‘스테이지업’ 등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운 창작 영역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청정원, 축제서 K-푸드 입지 강화**

**저당·저칼로리 제품 체험 행사**

대상 청정원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봄 축제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Seoul Spring Festival 2026)’에 참가해 K-푸드 대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1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은 서

울특별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공동 주최해 한강 전역을 축제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도심형 문화축제다.

대상 청정원은 지난 24일부터 26일에 이어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총 8일간 행사에 참여해 축제 현장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KT&G-중진공,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

**청년 창업 육성 등 협력  
“사회적 가치 확산 기여”**

KT&G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서울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영아 KT&G ESG경영실장과 이창섭 중진공 기획관리이사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 기업 육성에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또 중진공이 발굴 및 육성한 지역 기반 청년창업 기업의 팝업스토어, 전시회 운영과 온라인 SNS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로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 등을 뒷받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왼쪽)과 이창섭 중진공 기획관리이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KT&G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협업도 이어진다. KT&G의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상상스타트업캠프 참가자와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수료자 간 네트워킹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인사**

- ◆한국연구재단 ◇단장 선임 △인문사회연구본부 문화융복합단장 도승연
- ◆우주항공청 ◇과장급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 강호원
- ◆기획예산처 ◇국장급 △재정투자심 의관 고재신
-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경북북부 제1교도소장 김성호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서호성 △법무부 보안과장 이성호 △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강홍석 △법무부 의료과 문우식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이동근 △안양교도소 보안

- 과장 박성래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정세락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이병환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이창현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유동운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김희숙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김중배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양원동 △의정부교도소장 정진 △창원교도소장 안영삼 △부산교도소장 이민열 △전주교도소장 주정민
- ◆국가보훈부 ◇과장급 임용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이경률
-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실 인재기획담당관 구혜리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 마라탕 중독과 균의 습격 ②



**연운열의**  
푸드톡

이번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수치가 나온 곳은 '상\*마라' 아주대직영점이다.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210/g 검출됐는데, 이는 기준치(10/g 이하)의 무려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소\*마라' 가재울점의 경우도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470/g 검출돼 기준치 대비 47배를 기록했다. 그냥 "균이 나왔네" 수준이 아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소금 농도가 높은 환경이나 건조한 상태에서도 저항성이 강해 식품에서 수개월간 생존할 수 있고, 평균 3시간 후 발병해 구토·설사·복통·오심 증상을 유발한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진공 상태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임신부가 감염되면 유산이나 사산, 면역 취약자에게는 수막염·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대목은 따로 있다. 한 매장에서 조리 음식(마라탕)과 소스(땅콩소스)에서 동시에 균이 검출된 사례는 교차오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

이 크다.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주방 전체의 위생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방증이다. 마라탕은 조리 후 바로 섭취하는 음식이고, 땅콩소스 역시 별도 가열 없이 먹는 경우가 많아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문제를 단순히 특정 업체의 '불량'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한다. 마라탕 매장의 특성상, 수십 가지 재료가 동시에 진열·보관된다. 날것과 익힌 것이 뒤섞이고,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손님이 직접 재료를 담는 과정에서 교차오염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

식약처가 2019년 마라탕·마라탕귀 음식점 63곳을 점검했을 때, 3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체 매장의 60%다. 이번 조사에서도 20곳 중 3곳(15%)이 걸렸다. 수치는 줄었지만, 7년이 지나도록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

땅콩소스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도 있다. 소스는 한 번 만들어 두고 장시간 상온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냉장 보관과 제조 후 빠른 소진이 이뤄지지 않으면, 리스테리아균 같은 저온성 세균이 냉장 상태에서도 번식한다는 사실을 많은 업주가 간과하고 있다.

마라탕을 앞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똑똑하게 먹자는 얘기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인증을 받은 매장을 선호하는 것이 현명하다.

땅콩소스 상태를 확인하자. 소스가 실온에 오래 방치돼 있거나, 색이 이상하거나, 분리해 침하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들은 "음식을 받은 즉시 포장 용기의 파손 여부와 오염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온도로 배달됐는지 확인하라"며, 배달·포장 식품은 바로 섭취하고 즉시 먹기 어려운 경우 냉장 보관 후 충분히 재가열해 먹을 것을 권고했다.

마라탕은 이미 '유행 음식'이 아니다. 탕후루가 한철 장사로 끝나 급격히 쇠락한 것과 달리, 마라탕은 202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확실한 스테디 음식으로 자리잡아 꾸준한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위생 관리도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1000억~2000억 원 시장을 굴리는 업계가 아직도 '땅콩소스 기준치 47배 초과'를 용납하고 있다면, 그 성장은 모래 위의 성이다. 맛은 혀를 흥분시키지만, 위생은 생명을 지킨다. 마라탕 업계 전체가 이 기본을 다시 새겨야 할 때다. /기술사, 칼럼니스트

# 현대차, 차이나드림 '분골쇄신' 해야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화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전기차 출시 전후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전기차는 전기모빌리티·자율주행 등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오토차이나'는 전기차 시대의 글로벌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다.

지난 24일 개막한 오토차이나는 말 그대로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의 가파른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현대차·기아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도 명확했다. 단순히 과거 사드 사

태로 인한 판매량 감소로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 10년전과 비교하면 지리자동차그룹, BYD, 상하이자동차, 체리자동차, 샤오미 등 중국 현지 자동차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수준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베이징 현장에서 만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 시절에는 독일차 일본, 한국 순으로 중국 브랜드보다 높은 기술력을 선보였다"면서 "전기차 시대에 현대차는 중국 브랜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차·기아가 중국 시장에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성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기업의 성장은 무서울 정도다. BYD는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로 성장했으며 지리자동차를 비롯해 자율주행 업체들은 로보택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차는 이번 오토차이나에서 정주영 창업회장의 정

신을 강조하며 아이오닉 브랜드 런칭과 아이오닉 V로 중국 시장 공략을 선언했지만 중국 기업을 넘어서는 전략과 기술은 보이지 않았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BMW와 아우디,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를 영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디자인 차별화' 전략이 통할지 의문이다.

현대차가 2018년 평창에서 선보인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당시만해도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이 있었지만 8년이 지난 현재도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가 다시 한번 차이나드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미비점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고 정주영 창업회장이 강조한 '적당하리는 그물 속에서 오직 운만을 바라는 인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 /ysw@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8일 (음 3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위험한 상황이 가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60년생**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2년생** 조심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4년생**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9년생** 주위를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61년생** 사회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73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수일이 있나 먼저 살펴보세요. **85년생**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50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62년생** 남성방향에 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4년생** 많은 것을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더 이상은 잘 되지 않으니 쉬어주세요.



**51년생** 건강도 함께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75년생** 재물이 아주 좋게 들어옵니다. **87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52년생**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64년생** 가던 방향을 그대로 고집해야 합니다. **76년생** 잠시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88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53년생**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65년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77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89년생**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할 때입니다.



**54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6년생** 기분 좋고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78년생**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맑게 하세요.



**55년생**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67년생** 현실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79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91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조금 더 열어야 합니다.



**56년생**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68년생**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80년생** 사소한 고민은 하지 마세요. **92년생** 새로운 모험심이 생기게 됩니다.



**57년생**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69년생**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81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니 기다리세요. **93년생** 일처리를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58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70년생** 옛 동료와 만나게 되니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82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94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59년생**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따릅니다. **71년생** 원대한 것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83년생**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95년생** 말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 김상회의四季

## 수(數)의 비밀 ①



소강절선생은 매화역수(梅花易數)를 창시한 인물이다. 송나라 때 사람으로 매화역수를 운명의 예측에 도입하게 된 배경엔 전해지는 얘기가 있다. 어느 날 제자들과 거닐며 매화나무에서 두 마리의 참새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마침 매화 가지가 땅으로 똑 떨어졌다. 선생은, 내일 저녁에 꽃을 꺾은 여자가 넘어져서 다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그러했다. 이로부터 매화역수(梅花易數)라는 명칭이 탄생했다. 매화역수는 수리역학이라는 별칭으로 생년월일의 숫자를 조합하여 운명의 총운과 대운 및 세운, 더 나아가 월과 일, 시까지 세분하여 예측하는 수리 역학의 효시가 된다. 선천상수학(先天象數學)을 이미 초년 시절부터 공부하여 경지에 이른 소강절선생은 "천하의 수(數)는 이치에서 나온다."라고 천명했다.

육십갑자의 조합으로 운명을 예측하듯 1에서 9까지의 숫자만으로, 기가 막히게 운명 예측을 하게 된 것이며, 정확도는 놀라웠다. 이에 선생의 후손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공부하느라 늦장가를 들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날 것도 산가치를 뽑아 점을 쳐서 알았으며, 자손의 미래가 궁금했던 선생은 아들, 손자, 증손자 그렇게 계속 점을 쳐보니 5대손에 이르러 번고가 생길 운이었다. 후손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방책을 마련했는데, 만며느리에게 비단으로 쓴 함을 하나 내어 주면서 "살아가다가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기거든 이 보자기를 풀어보라. 만약 너의 대에 큰일이 생기지 않거든 네 만며느리에게 물려 주고, 그 만며느리 대에 아무 일이 없으면 다음 만며느리에게 물려 대대로 이 함을 전하라."고 했다. 과연 5대손에 이르러 후손이 역적의 누명을 당하였는데 황망한 번고가 생기면 풀어보라 한 함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이 함을 형조 상서 집에 가져다 전하라." 하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피어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3	1	
4		3	9		
			2		7
	7		2	6	
					8
2		8	5		1
6		7			
	5	8			6
9	2	4	1		

3	4	9		7	
		5	7		
2	6		3		
9					8
		5	9	2	6
7					9
			1		5
		3	8		
3		6	7		2

8	2	1	9	7	9	2	8	6
9	6	7	8	2	9	1	2	1
9	8	2	6	1	2	8	7	9
6	1	2	7	9	8	9	8	2
7	2	9	1	2	8	6	9	8
8	8	9	9	2	6	7	2	1
2	7	8	2	9	9	1	6	8
2	9	6	8	8	1	2	9	7
1	9	8	2	6	7	8	2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0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0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고1 학력평가, 수학 33%·영어 74% 교육과정 벗어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자회견 3월 학평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수학, 일부 ‘킬러문항’ 형태 보여 영어, 교과서 수준과 난도 격차 커

2026학년도 고교 1학년이 치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수학 문항 3개 중 1개, 영어 독해 문항 10개 중 7개가 시험 범위인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 30문항 중 9문항(33.3%), 영어 독해 28문항 중 20문항(71.4%)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26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수학 전 문항과 영어 독해 전 문항,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3 교과서 4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학은 중·고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22인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교차 분석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026학년도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영어는 ATOS 지수를 활용해 독해 지문의 난도를 측정했다. ATOS 지수란 독해 지문의 문장 구조와 어휘 수준, 분량 등을 바탕으로 텍스트 난도를 산출하고 이를 미국 학년 기준으로 제시하는 지표다.

수학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미준수, 평가 방법 위반, 고등과정 선행학습이 유리한 문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개념을 활용

하면서도 복합적인 추론 과정을 요구해 사실상 선행학습 여부가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영어 영역은 교과서 수준의 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중3 영어 교과서 4종의 최고 난도는 미국 학년 기준 초6~중1 수준(AR 6.73~7.17)인 반면, 학력평가에서는 최고 난도가 미국 고3 수준(AR 12.63)으로 분석됐다. 전체 독해 문항

의 71.4%가 교과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난도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표준점수를 살펴봐도, 최고점이 국어 146점, 수학 156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험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학은 역대 수능 최고치였던 2020학년도 149점보다 7점 높은 수준으로, 평균 점수도 43.31점에 그치고 표준편차가 20점 이상으로 벌어져 상·하위권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평균 56.80점, 표준편차 19.10점으로 상위권도 70점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1등급 비율은 4.38%에 그쳤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6~10%보다 낮은 수치다.

사걱세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치자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난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며 “당시 평가원이 수능 영어 1

등급 적정 비율을 6~10% 수준으로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3월 학평의 영어 1등급 비율 4.38% 역시 난도 조절 실패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이 같은 결과가 학교 교육만으로 시험 대비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사교육 의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력평가를 출제하는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을 준수한 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과 함께 학력평가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학력평가 출제가 반복될 경우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학력평가 역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 무주택 시민 주거비 지원 확대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지원율 30%→40%… 최대 7000만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를 모집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6000호는 청년 특별공급 3000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가 공급된다. 청년 3000호는 올해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

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신용등급·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마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로 4배 가까이 확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주택)로, 지원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중 보증

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2년 단위 계약)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해 입주민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이번 모집은 오는 30일 공고된다. 입주자 신청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SH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7월 31일 발표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세대 공급

###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사업’ 승인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주거와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세대를 공급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사업’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하남시 천현동 일원 3만 5722㎡ 부지에 아파트 7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31㎡부터 59㎡까지 다양한 평형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거점사회복지시설’ 도입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기능에 치중되면서 입주민의 사회적 단절과 복지 사각

지대 문제가 지적돼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 통합, 단지 내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세대 중 100세대는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된다. 해당 주택에는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고령층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가 반영된다.

입주민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공간도 확충된다. 단지 내에는 일자리 상담실과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버블세탁소, 카페라운지 등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일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한양대 국제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원서 접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된다. 면접은 5월 30일, 합격자 발표는 6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모집은 동아시아학과, 지속가능경제학과, 글로벌전략·정보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속가능경제학과는 기후위기 대응, 경제사회 불평등, 사회연대경제, ESG 실천, 국제개발협력, 기업의 ESG 대응과 금융·정책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 글



한양대 국제대학원 전경

로벌 전환기 속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으로, 공공기관·금융권·기업·비영리·국제협력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적합하다.

글로벌전략·정보학과는 전략적 리더십, 정보분석, 시장정보, 보안 및 위기관리 등 4개 분야의 실무적 전문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와 정보가 의사결정의 핵심 자원이 되는 시대에 국제경영, 경쟁정보, 디지털비즈니스, 시장정보미디어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와 공공정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역량을 높인다.

동아시아학과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국제관계를 탐구한다. 동북아 트랙과 러시아 트랙을 통해 지역 전문성과 국제정책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지향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28일(화)

음력 : 3월 12일

수도권 날씨

11 ~ 18℃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41 | 해질 / 19: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 “이란, 美에 ‘우선 호르무즈 개방·중전 합인→이후 핵협상’ 제안”
- ▲ 구윤철, OECD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에 “정책 대응으로 반등 가능”



- ▲ 英 찰스3세, 독립 250주년 축하 방미…트럼프 만찬·의회 연설
- ▲ 대만 외교, 아프리카 수교국 방문…중간섭 피해 유럽 경유

사진 뉴스

- ▲ 中 1~3월 공업이익 365조원·15.5% ↑ …“컴퓨터·통신·전자 제조 견인”
- ▲ 일본, 미국산 원유 91만 배럴 도착… 내달 전년 대비 수입 4배 확대 계획



백화점 3차  
매출·수익성 개선  
1분기 호실적 예고  
L1



Life

K-미용  
해외입지 탄탄  
외국인도 문전성시  
L2



# ESG에 투자, 탄소배출권 확대... 금융으로 틈은 희망의 싹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하나증권

기업활동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 됐다. 다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게 ESG는 보고서 안에 머무르거나, 특정 캠페인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증권은 ESG를 '업무'가 아닌 '방식'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 대응은 '투자'로, 사회공헌은 '조직 문화'로, 그리고 ESG는 전 임직원이 '체감하는 일상으로 확장'하는 구조다. 단순히 "회사가 좋은 일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 금융투자회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개정... ESG를 '투자 기준'으로

하나증권 ESG 전략의 출발점은 금융이다. 하나증권은 2021년 수립한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ESG 금융체계를 운영해왔으며, 2025년 11월 이를 전면 개정했다. 단순한 기준 업데이트가 아니라 ESG 투자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변화다.

이번 개정에서는 ESG 요소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보다 깊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체계화했다. ESG를 '참고 요소'가 아니라 실제 투자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만든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기후 대응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지지를 선언하며 기후 리스크를 재무정보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하나증권 역시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ESG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ESG를 통해 투자 방향과 리스크 관리 방식을 동시에 바꾸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 ◆ 탄소배출권·해외 사업 확대... '환경'이 곧 금융이 되는 구조

환경 분야에서는 보다 직관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증권은 2021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이후, 관련 시장에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탄소시장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 점이 특징이다.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나증권 관계자들. /하나증권

#### 보고서 벗어나 실천하는 ESG 펼쳐 지속가능금융 기반 ESG체계 운영

#### 증권사 최초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 탄소, 규제대상 아닌 '금융자산'으로 국내 넘어 해외탄소시장까지 영역 확대

2023년에는 싱가포르 탄소거래소 CIX(Climate Impact X)와 협력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했고, 위탁 매매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투자자 접근성도 높였다. 탄소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 자산'으로 다루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해외 프로젝트는 ESG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태양광 정수시설 보급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깨끗한 식수 공급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는 조림 사업을 통해 약 26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이 사업을 통해 약 49만톤 규모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예상되며,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고용 창출 등 복합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ESG가 '숫자'가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국립수목원

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산림 생태계와 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전 활동을 확대하고, ESG 콘텐츠 개발 및 인식 제고 활동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스포츠와 결합한 ESG 실험이다.

하나금융그룹 프로축구단 대전하나시티즌과 함께 추진한 '탄소중립 실천 경기'는 경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감축과 상쇄까지 연결한 사례다.

특히 감축이 어려운 잔여 배출량은 방글라데시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활용해 상쇄하며 ESG 활동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완성했다.

환경 활동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금융 자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 점이 하나증권 ESG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 ◆ '1인1봉사'로 이어진 ESG... 회사 밖까지 확장되는 변화

하나증권 ESG의 또 다른 축은 '사람'이다. 회사의 정책을 넘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ESG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1인1봉사', '1기부' 캠페인이다. 본부 및 부서 단위로 사회복지시설

과 매칭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활동과 연계한 기부금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ESG는 더 이상 별도의 업무가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2024년 한 해 동안 누적 봉사시간은 3853시간에 달했다. 일부 부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봉사를 이어가며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의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쪽방촌 겨울나기 지원, 아동복지시설 급식 봉사, 장애인 시설 방문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연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 임직원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펼쳐 1인1봉사, 1기부... 일상 속 나눔활동

#### 취업 취약청년에 금융교육, 멘토링 등 장기적 가치창출 위한 경영철학 실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역시 눈에 띈다. 하나증권은 서울광역청년센터와 협력해 취업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교육과 취업 멘토링, 모의면접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돕고 있다.

참여 인원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된 결과다.

또한 '청년봉사단'을 통해 임직원, 대학생, 취약계층 아동이 연결되는 구조도 구축했다. 임직원이 대학생을 멘토링하고, 대학생이 다시 아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ESG 가치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ESG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 철학"이라며 "금융투자역량을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지속가능금융  
ESG요소를 반영한  
투자체계 고도화



탄소금융 선도  
탄소배출권 시장조성, 해외  
사업으로 환경가치 확산



사회적 가치 실현  
1인1봉사·1기부로  
나눔과 상생 실현



청년과 함께 성장  
청년케어·멘토링으로  
미래세대 지원



ESG 문화 확산  
임직원 참여로  
지속가능한 변화 창출

## 메트로 한줄뉴스



▲지드래곤 재단도 나선다...세계유산위 흥행 힘 받는 유산청 /사진 뉴스  
▲"김수미 출연료 1억6천만원 미지급 제작사 퇴출시킨다"

▲음주운전으로 고개 숙인 여자배구 안혜진 "진심으로 죄송"  
▲삼성 미야지 공에 맞은 키움 박수종, 고막 천공 진단...회복까지 3주

▲'김현수 더비' KT vs LG, 1·2위로 재격돌...키움·롯데, 탈꼴찌 대결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이자 리더" LAFC 주장의 찬사